

第 2 分 科 會

(産業協力分野)

〈共同議長〉

韓國側：趙 錫 來 曉星GROUP 會長

日本側：藤 村 正 哉 三菱マテリアル(株) 取締役 社長

第26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

THE 26TH JOINT CONFERENCE OF KOREA-JAPAN & JAPAN-KOREA ECONOMIC COMMITTEES

1994. 4.14~16 FUKUOKA JAPAN

<第2分科會 主題>

(産業協力分野)

韓日兩國의 産業構造變化에 따른 效率的인 産業技術協力 方案

韓國産業經濟研究院

會長 韓 甲 洙

序 論

最近 韓國의 김영삼 대통령의 訪日을契機로 전개되고 있는 韓日兩國의 새로운 協力關係를 實質적으로 增進하기 위해서 韓日兩國의 産業技術協力 擴大 方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兩國間 貿易規模는 92년 300억불, 93년 315억불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對日 貿易赤字 規模도 92년 79억불, 93년 85억불로 확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圖 1). 이러한 韓日間 貿易不均衡의 原因은 韓國이 資本財 및 部品の 상당부분을 日本의 公供給에 의존하고 있는 産業構造라는 점과 他아시아諸國으로 부터 競爭力있는 製品이 日本市場에 進出

함으로써 韓國의 對日輸出이 不振하며 여기에 한국의 對日 輸出關心品目에 대한 日本의 關稅, 非關稅障壁 등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와같은 韓日兩國의 貿易不均衡을 是正하기 위해서 韓國側은 産業의 國際競爭力 強化 및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추진하는 한편 日本側도, 韓國側의 貿易不均衡 시정노력에 최대한 協力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世界情勢, 그 중에서도 특히 ASIA의 經濟環境을 주시하면서, 韓國과 새로운 共存共榮의 經濟關係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韓國은 과거 日本으로 부터 다양한 형태의 技術을 導入, 日本은 韓國의 技術最大供與國 이었으나 最近에는 停滯狀態에 있을 뿐만아니라 日本으로부터 技術導入實績은 92년 총 232건으로 전년대비▲16.2% 감소하고 있습니다. 國別 技術導入 比重에 있어서도 92년 日本이 232건으로 43.5%, 美國 163건의 30.6%, 獨逸 26건의 4.9%에 비해 압도적인 반면 租稅減免 對象의 高度技術은 92년 日本 26건으로 11% 수준에 불과하여 美國 45건의 28%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圖 2).

한편 日本의 對韓 直接投資 比率도 93년 件數面에서 85건으로 29.0%, 美國 69건 23.5%, 獨逸 11건에 3.8%인 반면, 金額面에서는 美國 32.6%, 日本 27.4%, 獨逸 8.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韓日間 産業技術協力을 綜合해서 評價하여 볼때 지금까지 日本의 對韓 技術移轉이 不振한 것은 첫째, 日本은 直接投資를 통한 技術移轉을 더 選好하고 있음에 비하여, 韓國은 技術讓與契約을 통한 技術移轉을 더 選好하고 있고, 둘째, 日本이 對韓 첨단기술이전의 부메랑효과를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하며, 셋째, 知的財産權保護 등 韓國의 기술수용태세에 대한 불만, 넷째, 韓國의 노사분규, 고임금 등 산업환경이 중국 등 아세아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韓國은 最近 勞使協助 雰圍氣가 조성되고, 賃金도 安定化되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현재 日本企業들도 분황속에서 大規模 産業再構築을 시도하면서 엔화강세에 따라 生産要素價格의 上昇으로 海外生産基地로 이전을 적극화하고 있어 韓日兩國의 産業技術協力與件은 크게 改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世界經濟秩序의 再編과 韓日 産業技術協力の 必要性

21세기를 향한 世界經濟의 큰 특징의 하나는 “地域主義 趨勢의 深化”입니다. 유럽은 '93년 1월 발효된 마스트리히 조약에 의하여 “單一유럽”이 진전됨에 따라 經濟成長이 촉진되고 物價가 안정되며 財政收支 및 國際收支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美洲의 NAFTA는 經濟發展段階가 상이한 국가간에 체결된 최초의 포괄적 自由貿易協定으로서 關稅引下에 의한 自由貿易 달성에 그치지 않고 정책협조를 통한 經濟構造調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아.태지역에서도 역내 相互依存度の 빠른 증가를 바탕으로 '70년대 부터 “實質의인 經濟統合”이 점진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BLOCK화 傾向속에서 80년대 이후 ASIA제국의 經濟는 눈부시게 발전하여 世界의 成長Center로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日本을 비롯한 先進國의 投資와 技術協力は ASIA NIEs로부터 시작되어, ASEAN, 현재는 그 중심이 中國으로 옮겨지고 있는 狀況입니다. 韓日兩國은 이러한 ASIA지역 經濟의 現況과 發展을 고려하여, 比較優位를 상실한 분야를 축소해 나가면서, 새로운 比較優位分野를 찾아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圖 3).

韓國經濟는 신정부 출범이후 外國人投資環境의 改善, 市場開放, 資本自由化 등 모든 경제정책을 國際規範에 맞도록 개선 중에 있습니다.

예를들면 30개 海外投資 제한업종 중 13개업종의 제한을 解除, 7개업종

의 제한정도를 緩和하고 94. 2부터 政府審議免除投資對象을 1천만불이하에서 2천만불이하로 上向調整하므로써 개방화와 국제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韓國産業은 最終財의 組立段階에서의 效率性보다는 最終財의 品質向上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될 素材·部品, 資本財 등 關聯産業의 發展이나 尖端技術의 應用能力에 따른 産業構造高度化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으로 이를 위해서는 先進國, 특히 日本의 投資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技術向上 및 部品工業(Supporting Industry)의 育成을 추진해야 합니다. 韓國이 國際競爭力을 강화하고 産業構造를 高度化하기 위해서는 한국 자신의 技術開發努力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日本의 적극적인 協力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편 日本의 聯立政權은 內需主導型 經濟를 지향하면서 가일층 市場開放 등을 통하여 과다한 經常收支黑字를 縮小하고, 국제협조정책하에 지구 사회와 共存하는 生活大國으로의 變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海外開發援助(ODA)의 효과적인 실시, 環境問題에 대한 협력 등으로 國際社會에의 적극적인 貢獻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聯立政府 출범 이후 日本은 전후 최대의 不況期에 직면하고 있어, 産業의 構造調整으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日本 新政府는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다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로의 도약을 위하여 內需를 擴大하고 過剩供給施設을 縮小하며 行政規制緩和를 꾸준히 추진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日本産業界는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円高에 따른 生産要素價格 上昇으로 비교우위를 상실한 분야에 대한 部品生産의 海外移轉을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서 日本의 최인접 국가로서의 地理的 長點 이외에도 市場購買力과 양질의 技術人力 그리고 상당한 工業基盤施設을 확보하고 있는 最適의 投資對象國이 바로 韓國이라는 것을 留意해야 합니다.

韓日 産業技術協力の 基本方向

韓日兩國은, ASIA제국의 공업화 발전에 대응하여 日本은 産業構造의 調整을, 韓國은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추진함으로써, 향후 ASIA제국의 經濟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는 貿易, 投資關係를 構築해 나가야 하는 것이 公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 韓日間の 産業技術協力の 基本方向

民間企業間の 기술협력은,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經濟論理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兩國政府는 기술이전이 보다 촉진될 수 있는 환경 정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韓國政府는 輸入先多邊化制度를 향후 5년내 50%수준으로 縮小하고 美國, EC에게 허용해준 知的財産權保護도 일본의 요구를 적극수용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日本企業도 韓國이 低賃勞動力을 바탕으로 한 투자대상국이 아니라, 선발개도국으로서의 技術力과 工業基盤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임금인상, 원화강세하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高附加價值業種 중심의 投資對象國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日本은 韓國의 투자환경개선 노력에 부응하여 尖端中小企業의 대한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현재 進行중인 大企業間 尖端産業技術開發과 시장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의 幅을 확대하고 정부간 협력에 의한 基礎技術의 共同研究를 촉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 가야할 것입니다.

日本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韓國의 개선된 投資環境을 고려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對韓投資를 고려하고 최근 日本에서도 엔고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自國內部品業體의 對韓投資를 적극유도하기 위하여 韓

國에 투자하는 關聯業體의 金融 및 稅制支援을 全向적으로 검토함이 좋을 것입니다.

2) 産業技術協力の 事例

최근 韓國의 貿易振興公社가 일본기업들이 바라는 對韓 部品購買 및 生産基地 移轉 對象品目調査를 실시한 결과 히타치 제작소, 도시바, 미쓰비시 중공업 등 66개사가 部品購買를 나프코, 카시오, 미쓰비시전기 등 25개사는 生産基地 移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調査에 의하면 일본기업중 電氣 電子 10개사, 금속 15개사, 造船 7개사, 機械 12개사, 化學 3개사 自動車 및 同 部品 6개사, 其他 13 개사등이 한국기업에 部品購買등을 희망하고 특히 IC 전자용융장치 합금환경기기 등 高附加價值製品 및 기술협력이 필요한 부품의 공급까지도 韓國에 요청하여 엔고에 따른 主種 輸出品의 대외경쟁력약화를 韓國産 部品購買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具體的인 産業技術協力 強化方案

日本の 對韓投資 및 産業技術協力は, 長期的으로 양국간의 무역을 확대 균형되게 할것이며, 나아가 韓日兩國의 大ASIA제국에 대한 중추적인 投資 및 産業技術協력으로 연결되어, ASIA역내 經濟發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1) 테크노마트 活性化

韓日兩國은 산업기술에 대한 市場原理를 도입하여 산업기술의 활발한 거래와 이를 통하여 貿易不均衡을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로, 技術商品化 및 合作投資를 위해 상설 테크노마트를 통한 必要技術의 商品化를 추진하고 市場에 제공된 技術의 合作投資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中小企業 테크노市場을 構築하는 것으로 현재 大企業들이 자체 기술정보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지만 中小企業은 資金力, 技術力, 協商力의 제한으로 共同技術情報市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테크노마트가 활성화 될 경우 韓國은 필요로 하는 技術의 소재파악과 技術의 重複導入回避가 가능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DB의 構築으로 技術情報의 해석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情報使用料金 등을 지원해 줄 수도 있을것입니다. 日本側에서도 技術商品化를 통한 購買力 増大가 기대되어집니다.

2) 相互協力 可能事業 發掘團 構成 運營

円高以後 日本의 資本 및 尖端技術과 韓國의 中級技術提携를 통한 제3國 進出의 戰略的 提携 必要性이 増大됨에 따라 相互可能事業의 체계적인 發掘과 수행사업의 적절한 事後管理를 위한 組織體가 構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海外共同事業 推進을 擴大함으로써 韓國은 엔고에 따른 (造船, 반도체, 自動車等) 比較優位 産業의 第3國 市場進出을 시도 (中國, 러시아 및 아세안 등에 대하여 相互協力을 통한 共同進出方案 검토)할 수 있고 日本도 엔고에 따른 中堅, 中小企業의 채산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海外進出을 모색하여야 할것이며 그 對象國家로서 韓國의 工業基盤 및 社會間接施設들을 이용할 수 있는 好機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韓日兩國은 제3국에 공동진출함으로써 韓國은 尖端産業의 技術을 移轉받을 수 있고 日本은 單獨投資에 따른 危險과 費用을 節減할 수 있으며 한편 日本은 對 EC, 對 美國등의 각종 견제에 대하여 共同의 對應戰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業界에서 高級, 高附加價值 事業을 선정하고 政府에서는 이가운데 協力可能事業을 選定하여 적극적인 行政支援을 해야할 것입니다.

3) 日本 退職技術者の 活用을 위한 事業推進

日本の 産業構造調整으로 日本式 雇傭慣行이 변화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高級退職技術者(素材·部品, 電氣·電子 등 尖端産業分野)를 적극 발굴 活用할수 있도록 兩國이 함께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인력에 대해서도 活用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技術人力의 長期雇傭을 許容하고 入國節次도 簡素化시키며 高級技術者 優待制度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日本의 退職技術者の 活用을 통하여 日本側은 조기퇴직인력의 再就業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産業構造調整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고 韓國도 日本의 高級技術을 移轉받게 됨으로써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 輸入先多邊化品目の 日側の 對 韓國進出에 따른 政府支援

韓日間 産業技術協力을 위하여 韓國政府가 먼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輸入先多邊化品目(233개 품목)에 대한 韓國 進出이 고려될 경우 各種 規制緩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진출을 유도하고 있으며, 技術移轉 기피품목이 주로 尖端部品 및 基礎素材産業이므로 租稅減免制度를 活用하여 참여업체의 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日本은 韓國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輸入先多邊化品目の 완화노력으로 最近近國의 市場購買力과 第3國 進出의 戰略的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韓國도 꾸준히 제기해온 日本側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韓日間의 産業技術移轉 및 直接投資 부진의 원인을 解消함으로써 한일간 산업기술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5) 部品·素材産業 中心의 技術協力 強化

韓國이 産業構造의 高度化로 國際競爭力을 強化시키기 위해서도 部品 등 多品種 少量生産에 적합한 産業組織이 필요합니다. 韓日貿易不均衡 시정을 위해서도 組立産業에 部品, 中間財를 供給하는 部品工業(Supporting

Industry)에 속하는 中堅 中小企業을 육성해야 할 것이며 한편, 日本은 엔고에 따른 생산요소가격의 상승에 따라 사업의 과감한 國際化 展開에 直面하고 있기때문에, 韓國을 비롯한 제3국의 中堅 中小企業과의 交流, 提携의 기회를 擴大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日本의 中堅 中小企業은 때로는 대기업 이상의 創造的인 技術이나 企業家 精神을 가지고 있는 반면, 海外 企業과의 접촉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韓日 中堅 中小企業間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企業間 交流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테크노 스쿨(TECHNO-SCHOOL)에 한국 기술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個別企業次元에서 해결할수 없는 經營改善 普及事業(企業經營, 工場管理)으로 韓國 經營者들의 日本 研修機會를 擴大하는 한편 韓日學者들간에 共同研究를 통하여 관심분야를 집중 연구함으로써 韓日間 産業技術交流를 強化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人的交流事業들은 日本의 大企業 對 韓國의 中小企業 교류, 韓國의 大企業 對 日本의 中小企業 교류 그리고 韓日 地方 中堅 中小企業間 交流 등으로 확대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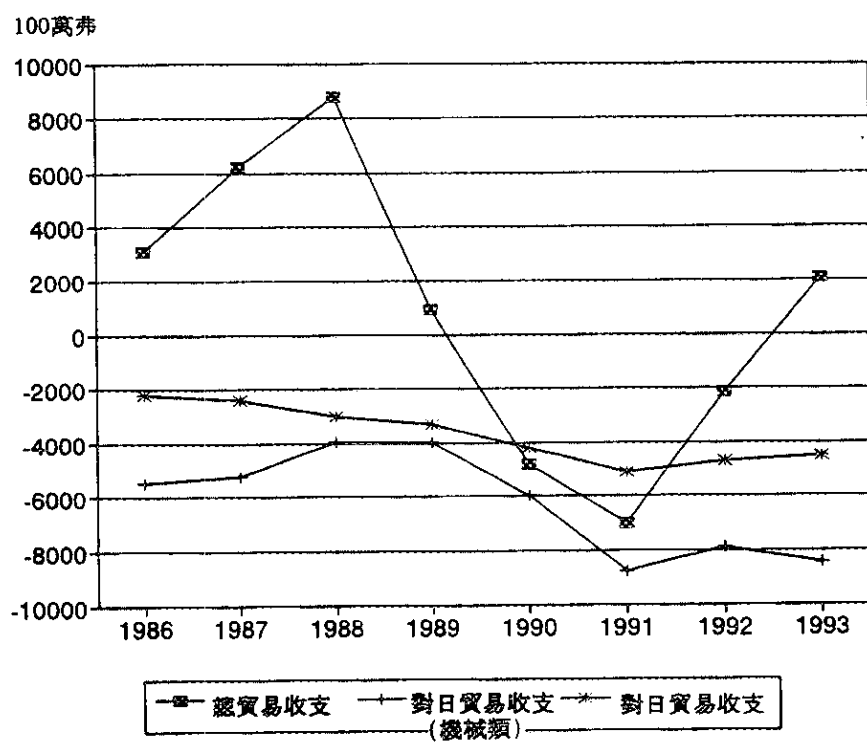
結 論

내년 95년은 韓日間에 國交正常화가 이루어진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30년동안 韓日間の 貿易逆調 累計는 韓國一方的으로 768억불 水準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잠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자체의 發展戰略과 産業構造에 크게 연유된 것이지만 얼마전 韓國의 KOTRA가 전망한것 처럼 日本의 엔고까지 겹쳐서 95년의 對日 貿易赤字規模가 100억불을 초과하게 된다면 한국으로서도 견디기 힘든 정치적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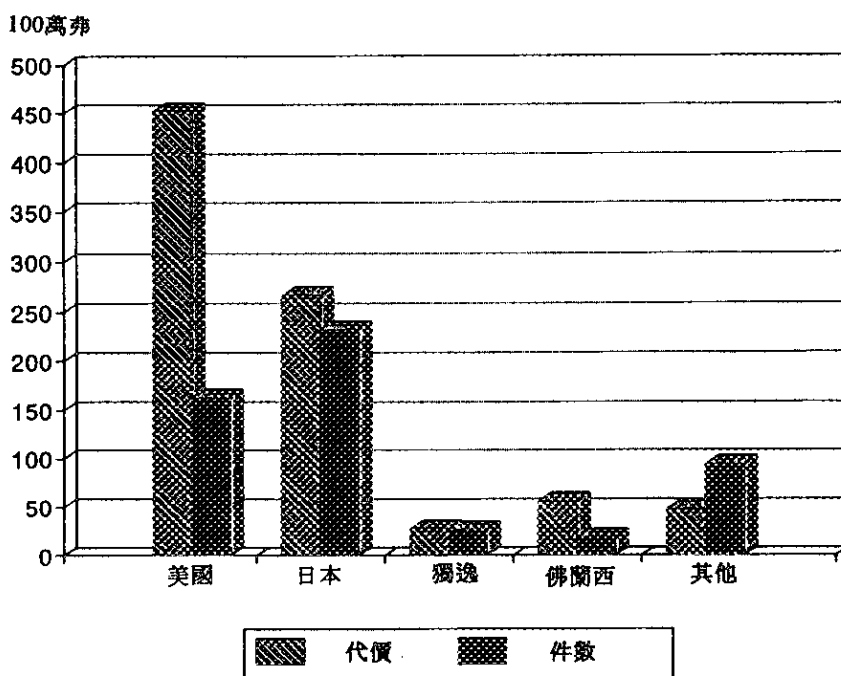
슈가 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일본 경제계에서도 무역흑자규모 확대가 세계경제를 불안정화 시킬 정도로 이미 적정규모를 넘어섰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제 한일양국은 기본적으로 경제논리에 입각하되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될 동아시아경제권의 共同繁榮을 위해서 그 밑거름이 될 韓日兩國의 産業技術協力の 擴大 深化에 積極 나서야 할 時點이라고 생각합니다.

(圖 1)

年度別 對日 貿易收支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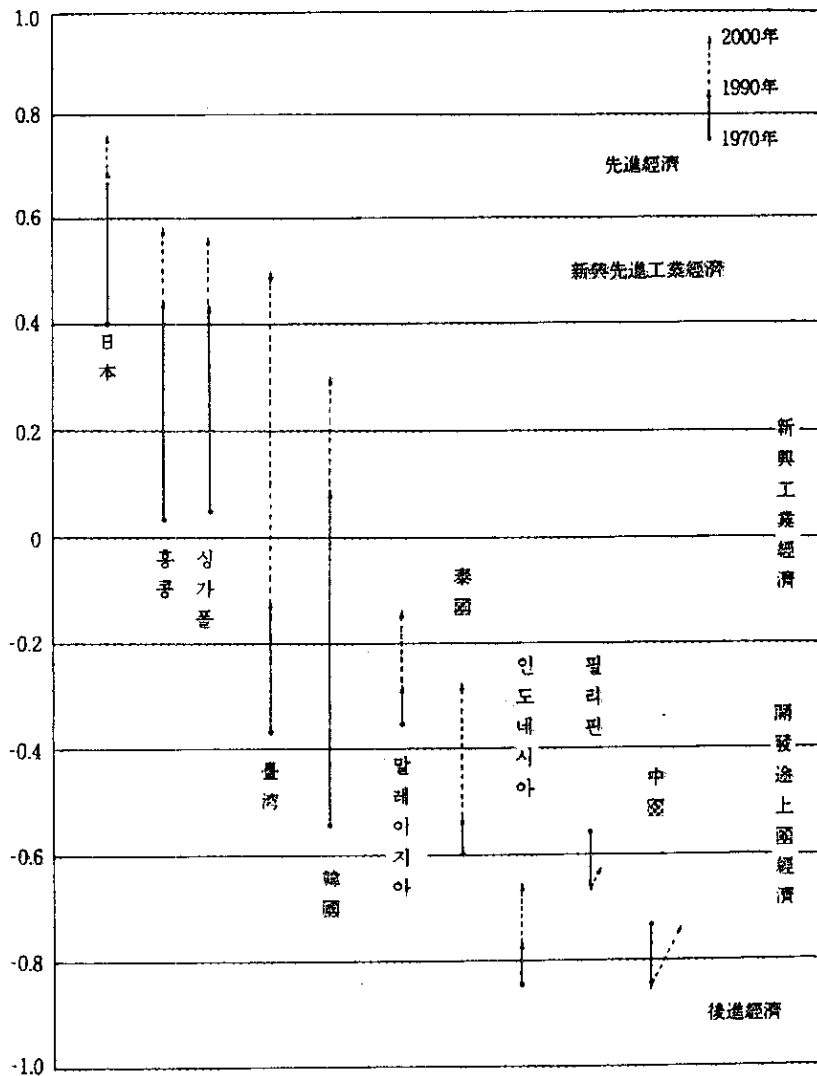


(圖 2) 1992年 國別 技術導入 代價 及 件數



(圖 3)

日本・ANIEs・ASEAN의 經濟發展 段階 및 展望



註：經濟發展段階指數 = $\frac{\text{各國1人當GNP} - \text{世界1人當GNP}}{\text{各國1人當GNP} + \text{世界1人當GNP}}$

資料：實績値は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各年號에 의거하여 계산하였으며, 豫測値는 洪裕洙, 「日本의 對아시아 技術移轉 戰略과 韓國의 對應」, 93. 12

第26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

THE 26TH JOINT CONFERENCE OF KOREA-JAPAN & JAPAN-KOREA ECONOMIC COMMITTEES

1994. 4.14~16 FUKUOKA JAPAN

<第2分科會 主題>

(産業協力分野)

최근의 일본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한국 등
아시아諸国과의 技術協力・投資에 대하여

(株)野村総合研究所 社長 水口弘一

●머리말

동북・동남아시아지역이 세계의 성장지역으로서 처음으로 認知된 것은, 「제1차 国連開發의 10年」의 레뷰・리포트가 나온 1960년대말이었습니다. 그 이래, 이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성장지역으로서 계속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1960년대에 일본에서 우선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소위 NIES로 전파된 공업화의 물결은, 이제는 ASEAN이나 중국으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경제발전은, 서로 다른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에 의한 추격과정, 혹은 雁行形態의인 경제발전으로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1인당 GDP의 수준이 아시아諸国에서의 발전단계를 웅변하게 설명해줍니다. 도표1의 왼쪽은 ASEAN 4개국과 중국을 한국과 비교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의 최근의 1인당 GDP 수준은 한국의 1983년의 수준에 해당됩니다. 오른쪽은 일본과 NIES를 비교한 것이며, 예를 들어서 홍콩의 최근의 1인당 GDP는 1982년의 일본의 수준과 부합되고 있습니다. 이 年数較差가 경제발전較差를 나타내주고, 雁行形態的發展過程을 상당한 정도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직접투자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발전단계의 높은 나라에서 낮은 나라로 투자가 흐르면 생산요소의 效率的利用이 진행되어 지역전체의 산업구조의 高度化와 성장을 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의 A산업의 比較優位는 特化係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係數는, A산업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것을 A산업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계로 나눈 것입니다. 이 係數가 크면 클수록 이 나라의 A산업이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국제무역의 발전단계는, 1次產品, 기계 이외의 공업제품, 그리고 기계류 등 3가지 財의 特化係數에 주목함으로써 도표2에서 알 수 있듯이 I 발전도상국, II 未成熟NIES, III 成熟NIES, 그리고 IV 선진공업국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표3은 과거로부터의 발전단계를 검토해서 예상도 가미한 것입니다.

이들 도표로, 첫째로서 아시아에는 여러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가 있어서 다양하며, 둘째로 무역구조가 높은 경제성장을 반영해서 급속히 시프트해나가는(특히 NIES)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SEAN諸國에서도 일본과 NIES로부터의 직접투자가 공업분야에 유입되어서 새 단계를 맞이해가고 있다는 것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냉전의 종결로 인해, 아시아에 있어서의 뉴·프론티어는 사회주의제국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월남은, 투자국의 노동력 부족이나 地價와 勞賃의 양등을 반영하여 직접투자의 수용국이 되어, 아시아의 BORDERLESS經濟의 현상은 경제나 정치시스템의 차이를 초월해서 한층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제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발전의 도리 그대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지역을 다이나믹한 성장지역으로 만들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거품경제의 붕괴와 일본경제

이번 일본의 거품경제의 발생과 붕괴는, 과거에 있어서 그 시대의 債權大國이 청년기로부터 壯年期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품의 붕괴로 초래된 이번 구조불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경기후퇴는, 과거와 비교해서 결정적으로 다른 5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이번의 최대의 특징은 資産디플레에 의해서 경제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토지와 주식의 내포된 이익에 의존한 「信用創造의 機能」이 토지와 주식의 대폭 하락으로 인해서 機能不全이 되어 경제활동에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것으로 인해서 금융시스템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家計와 기업 등 2 가지 스톡調整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家計는 80년대후반의 거품시대에 猛烈히 구매된 주택・耐久財의 스톡調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는 자동차입니다. 또하나,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톡調整은, 설비와 고용의 조정입니다. 설비조정은 과거와는 달리 素材産業뿐만이 아니라 가공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조정에 있어서는, 과거의 블루칼러 중심에 대해서 이번은 화이트 칼러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차이도 볼 수 있습니다.

네째는, 실력을 상회하는 엔고와 그 디플레이션의 압력입니다. 엔고로서는 이번이 제4차입니다만, 수출물가로 측정한 구매력평가를 사상 처음으로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엔고는 2 가지 압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디플레이션의 압력이지만, 물가 자체가 급격한 下向修正을 일으키는 局面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인건비 압력입니다. 최근의 엔고로 달러로 표시한 일본의 인건비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구미를 훨씬 능가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엔고는 제품의 수출에 있어서는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므로, 수출을 현지생산으로 대체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무역마찰 대응과는 다른 이유로 현지생산에 박차가 가해집니다. 그것은 시각을 달리하면 국내생산 대신에 현지생산물의 逆輸入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이미 소재산업에 있어서는 동아시아의 鐵이나 에틸렌의 생산합계가 일본의 생산을 상회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산업구조의 전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공업화사회로부터 정보화 사회로 가는 이행이 급속히 진전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경제는 전후 40년간, 모더니제이션에 의해 유도되어 아주 훌륭한 공업화사회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보급이 일단락함으로 인해 공업화사회는 큰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경제는 마크로적으로 閉塞狀態에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를 어떻게 타파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그것은 전후 40년간에 축적되어 온 二重構造를 극복하는 일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환율의 이중구조입니다. 실제 환율은 100엔을 약간 웃도는 정도이지만, 도매물가를 베이스로 한 구매력평가는 160엔, 소비자물가로 계산하면 무려 210엔이나 됩니다.

둘째는, 산업별 생산성의 이중구조입니다. 제조업의 생산성은 90년에 미국까지를 능가했고, 최근에 다시 열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비제조업의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생산성의 이중구조에 대해 抜本的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구조의 발생은 일본경제의 DOUBLE STANDARD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경제기획청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산업생산액에 있어서 규제에 의해서 보호되어 있는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40.8%나 있다고 합니다. 6할의 시장경제와 4할의 행정경제로 이루어진 2중구조입니다. 이 대응책으로서, 경제학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국제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우선시키고 국제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은 수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농업, 금융, 유통, 운수, 건설, 통신, 의료 등 7분야에 있어서의 발본적인 개혁 없이 일본의 再生은 시작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나가야 할 것인지요. 기본적으로는 3가지 정책과 세계개혁, 그리고 새로운 사회자본의 정비입니다. 첫째로, 규제완화와 규제철폐. 둘째로 시장개방. 셋째로서 内外價格隔差의 해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에 더하여 발본적인 세계개혁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90년대의 일본이 壯年債權國의 시기에 있는만큼,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일이 높은 생활기반의 충실화, 새로운 산업·기술기반을 열어나갈 마지막 기

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사회에 있어서의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国土軸과 정보·정보기반의 정비, 신기술기반 정비 등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됩니다. 이 일본경제의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經濟同友會의 경제정책위원회 아래 경제구조조정위원회가 작년 5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제가 部会長을 맡고, 「민간판 前川리포트」의 작성에 착수하여 11월에 최종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표 4에 그때 실시한 마크로경제모델에 의한 구조개혁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것의 일부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엔고상황하에서의 직접투자환경

일본에서는, 엔고에 의한 경기에 대한 악영향과 産業空洞化의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아시아諸国에서는 반대로 일본의 직접투자의 확대와 대일수출 경쟁력의 개선 등 엔고에 의한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번의 엔고와는 달리, N I E S의 메리트가 작고 A S E A N諸国과 중국의 플러스효과가 크게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A S E A N諸国이나 중국의 추격으로 N I E S에 있어서는 엔고의 메리트를 향수할 수 있는 산업분야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競争性이 강한 중공업에 있어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의 경공업은 構造不況業種이 되고 있어, 엔고 상황하에서도 수출경쟁력의 회복을 전망할 수 없는 셈입니다. N I E S에 있어서의 80년대 후반의 임금상승으로 이제 생산코스트 삭감을 목적으로 한 직접투자를 수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전번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생산재나 자본재의 수입가격 상승과 엔을 베이스로 한 債務의 상환부담 증대라는 데메리트가 있던 A S E A N諸国은 이번엔 플러스효과를 享受하고 있습니다. 量産体制가 갖추어진 제품으로, 자본·기술집약도를 불문하여 일본계기업의 직접투자가 재투자를 중심으로 늘고 있습니다. 또한, 부품·반제품의 현지조달화도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으로서, 일본계 전기·전자메이커를 중심으로 당해 지역에 생산을 집중시키는 움직임을 강화하는 한편, A S E A N제국에서는 인프라나 裾野産業을 비롯하여, 보다 고도한 제품과 생산공정을 수용할 준비를 추진시켜왔다는 것을

를 수 있습니다.

N I E S와 A S E A N諸国 이상으로 이번 엔고의 은혜를 중국이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에서 보호주의와 지역주의가 고양되는 가운데, 아시아諸国은 対欧美수출의 비중을 줄이고 아시아域内に 마아켓을 찾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계기업에 있어서도 아시아는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부터 「소비시장」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고 관측됩니다. 큰 인구를 가지고, 더구나 中長期적으로 高成長이 전망되는 중국이 직접투자 대상으로서 가장 유망한 후보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92년 이래의 중국경제의 개혁·개방 확대와 심화가 同国의 투자환경을 크게 개선시켰다는 것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가 작년 10월에 실시한 양케이트조사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표6을 보시는 바와 같이, 「금후 5년간의 対아시아事業戰略에 있어서 중요시하는 국가나 지역은 어디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회답결과를 보면 중국이라고 대답한 것이 82%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태국, 월남이란 순서로 상위를 차지했고, 그들의 노임이 저렴하다는 점도 있거니와 잠재적인 국내시장의 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92년 이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급증되고 있는데 대하여, A S E A N諸国에 대한 투자는 전자관계를 제외하면 신장율이 침체되고 있으며, 域内投資의 차이나·시프트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 경향은 일본 大蔵省이 정리한 도표7의 대외직접통계를 볼 때 현저하게 나타나 있으며, 93년도 상반기에 일본의 対中国投資가 전년대비로 57% 증대되었는데 대하여 対A S E A N투자는 전년대비로 27%나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금액으로 보면 対A S E A N투자는 13억달러로 対中投資의 7억달러와 비교해서 여전히 대폭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大蔵省統計에서는 일본에서의 送金分밖에 計上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재투자비율이 높은 A S E A N에서의 투자가 상당히 過小評價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対中投資가 신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華僑의 움직임과 비교하면 크게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금액(실행 베이스)은 93년에 258억달러에 달했고, 그 대부분을 홍콩과 대만기업을 비롯한 華僑系企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華僑의 対中投資는, 인프라·부동산개발이나 소매

· 유통업 등 사업규모가 큰 것 혹은 자본회수기간이 긴 것에 대하여도 증가되어 있으며, 對中코뮤티먼트의 정도는 한층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에는 특히 민감하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화교들의 이러한 새로운 투자행동은, 중국은 이제 리스크요인이 아니라 찬스로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그들의 의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콩이나 대만기업에 더하여 최근에는 ASEAN 각국의 경제를 뒤흔치는 華人系資本의 對中投資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華僑資本의 對中投資의 활발화는 유출을 경계하는 ASEAN 각국의 정부와 화교자본과의 마찰의 원인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는 경제의 好調를 뒤흔치해온 중요한 요인인만큼, 투자의 차이나·시프트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惡影響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두에 대하여 ASEAN 諸國도 국내구조문제의 해결과 산업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면서, 가일층의 외자촉진책을 내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는 93년 10월에 외자 100%기업에 대하여 설립조건과 국내판매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또한 말레이시아에서는 법인세율이 종전의 34%에서 단계적으로 95년도에는 30%까지 삭감할 계획입니다. 나아가서, ASEAN 전체의 投資魅力을 높이기 위한 方策으로서, AFTA, 成長의 트라이앵글 등 域内の 경제협력에도 힘을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ASEAN 諸國 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직접투자의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한국도 작년 11월에는 주로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외자우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85년 이후, 일본의 對아시아직접투자는 NIES로부터 ASEAN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국으로 시프트하는 雁行形態를 보여왔습니다. 이 성고적인 예를 범발아, 월남, 미얀마, 인도 등 아직 경제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다른 아시아 諸國도 이 雁行行列에 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환경의 정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의 촉진매체로서도 중요한 직접투자의 유치경쟁은 가일층 격화되었고, 인센티브가 平準化되는 경향이 강해질 지 모릅니다.

●기술이전·협력 등의 전망

엔고 상황하에서의 직접투자의 움직임은 투자액과 투자지역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90년대를 전망한 발전단계의 시프트상이 不鮮明해졌을 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通産省이 정리한 「創造的革新의時代」의 일본산업의 아시아展開(이 부분은 野村総合研究所가 작업하고 있다)의 부분을 借用해서, 附帶的 코멘트를 하고자 합니다. 도표5는 1990년대의 각국의 발전단계의 上向시프트의 노력에 호응한 일본의 산업의 아시아시프트·시나리오입니다. 現狀으로는 일본의 직접투자의 움직임에 대하여 이 스포트·시나리오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각국이나 각지역은 上位레벨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지 못하면 경제정체를 일으키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기술의 고도화, SUPPORTING INDUSTRY의 충실화 등 적극적으로 그 과제에 도전할 것이 요청되며, 또한, 일본의 협력도 필요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국에 대한 기술협력은, 기술도입을 보면 1962년부터 1992년까지 모두 4,044건에 달하여 전체의 50.2%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의 기술수출금액으로 볼 때도 국가별로는 항상 미국 다음인 2위에 있습니다. 산업별로는 화학, 전자, 전기, 기계 등 4분야로 2,936건에 달하여 일본에서의 도입건수 전체의 72.6%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직접투자와 더불어 감소경향에 있는 것이 실정인 것 같습니다.

도표8에 일·한·대의 산업·기업구조, 기술기반 이미지도를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보면 기초기술 즉 제조장치나 재료에 관하여 일본과 대만이 이러한 기반기술이나 하청기업 등으로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대하여 한국의 하이테크구조는 不安定하다고 일으켜져 왔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민간은 산업고도화를 위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급속히 높여서, 잇달아 대응책을 내걸고 있어, 이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달의 김영삼대통령의 방일시에 일한정부는 중견·중소기업이 육성지원을 비롯한 일한산업기반육성프로그램의 실시라는 점에서 합의를 본 것은 기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있어서도, 三星電子와 NEC가 256 메가 DRAM의 전체적인 공동개발을 추진하나가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산업은 질·량 공히 일본을 따라잡고 DRAM의 생산기술에 있어서는 세계정상급이며, 三星電子에서는 4 메가 DRAM의 생산에 있어서는 세계의 톱, 16 메가에 있어서도 벌써 IBM등의 인정을 통과해서 64 메가의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제휴는 기술이전적인 의미보다는 대등한 시장경쟁을 생각한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추측됩니다. 한국의 산업수준, 기술수준의 고도화 과정에서 비슷한 제휴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술뿐만이 아니라 동북중국이나 환동해경제개발 등에 있어서도 협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말만다면, 한국도 선진국 단계에 들어가면서 경제면에서의 교류강화를 초월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며, 아시아역내의 리더적인 역할도 일본과 함께 맡게 되기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雁行的經濟發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리더역할을 하는 일본이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을 관세 등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투자나 기술이전 등을 통해서 후발국으로 이전해 나간다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책이 불가결합니다. 이것이 후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산업구조의 가일층의 고도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세계최대의 채권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이제까지 미국이 맡아 온 역할을 대체하는 형태로 아시아 각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수입 증대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일본을 따라오는 NIES, ASEAN諸國에게도 요청됩니다.

최근, 일본수출은행의 융자나 기술원조 등 정부개발원조(ODA)를 살려서 국내석유화학메이커의 과잉생산설비의 중국이전을 지원하는 通産省의 계획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日經新聞 3월 4일자). 이 계획은 적극적 산업조정의 정신에 그야말로 일치하는 것이며, 금후, 다른 산업과 다른 도상국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이 기대됩니다.

세계와 共存共榮하기 위해서도 일본은 「생산과 수출이 쏠, 소비와 수입이

悪」이라는 종전의 重商主義的인 兪想을 버리고, 生活者重視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衰退産業의 해외이전과 (日系企業의 해외거점으로부터의 逆輸入도 포함) 수입의 자유화는 생산코스트의 삭감과 수입가격의 저하에 의한 交易條件의 개선을 통해 일본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로 인해 아시아에 있어서의 雁行的인 발전이 지속될 수 있다면 일본의 同地域을 대상으로 한 수출이 한층 더 증대되며, 수요측에서 일본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안전보장상으로 중요한 아시아지역의 정치적 안정에도 연결될 것이 기대됩니다.

그러한 의미로, 일한양국은 아시아지역의 가일층의 발전과 국가·지역의 상호의존성이 한층 더 강해지는 가운데, A P E C와 같은 태두리내에서의 협력도 더욱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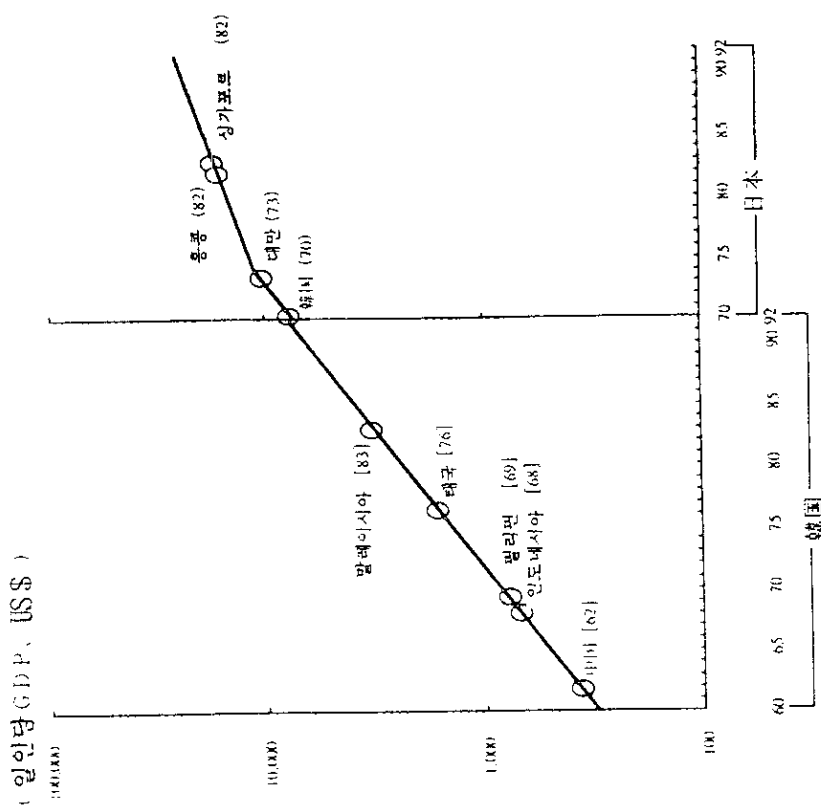
發表資料

最近의 日本의 産業構造의 變化에 따른 韓國 등
아시아諸國과의 技術協力・投資에 대하여

1994年4月15日

(株)野村総合研究所
社長 水口 弘一

圖表 1 아시아諸國의 發展과 現段階 (日本・韓國과의 比較)



(注) 1. 各國 데이터는 92年, [] 內는 韓國, () 內는 日本을 基準으로한 該当年은 表示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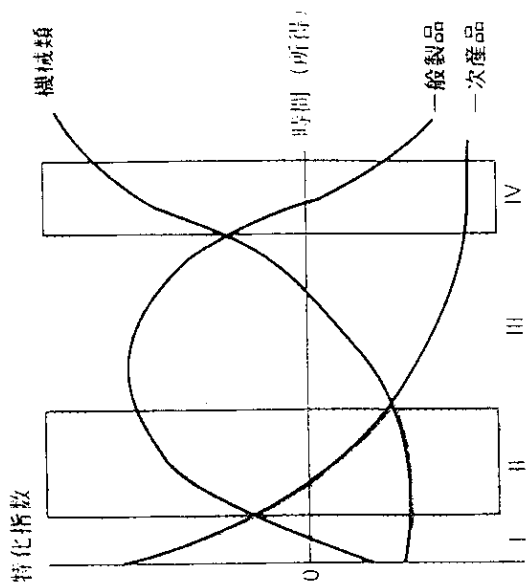
2. 美國의 GDP 디플레터를 사용하여, 92年을 基準으로 實質化함.

(出所) 野村綜合研究所編 「아시아의 發展과 리스크」 P14

圖表 2 貿易構造 諸段階

	特化指數	例
I	一次産品 > 一般製品 > 機械類	태국 인도네시아
II	一般製品 > 一次産品 > 機械類	中国
III	一般製品 > 機械類 > 一次産品	韓國、香港
IV	機械類 > 一般製品 > 一次産品	싱가포르 日本

I=發展途上國, II=未成熟NIEs, III=成熟NIEs, IV=先進工業國



(出所) 野村綜合研究所編 「아시아의 發展과 리스크」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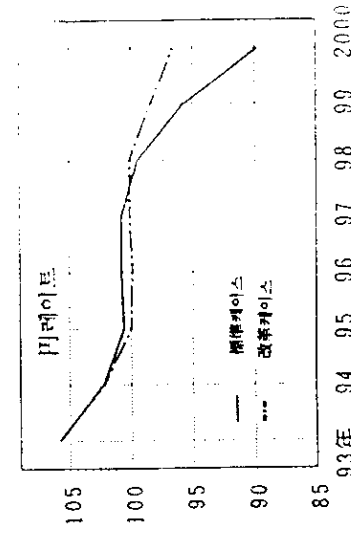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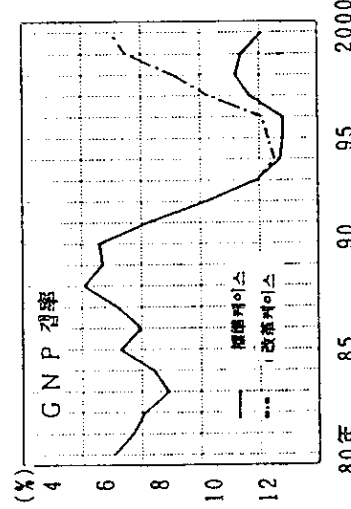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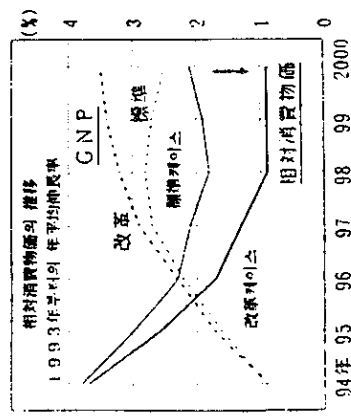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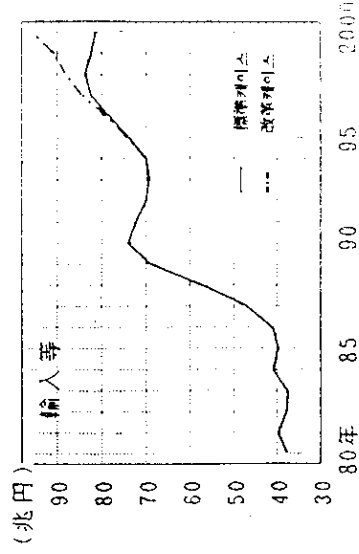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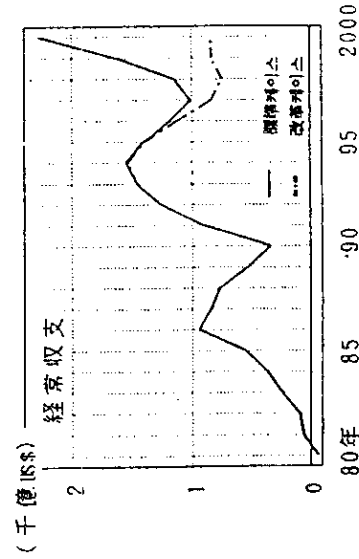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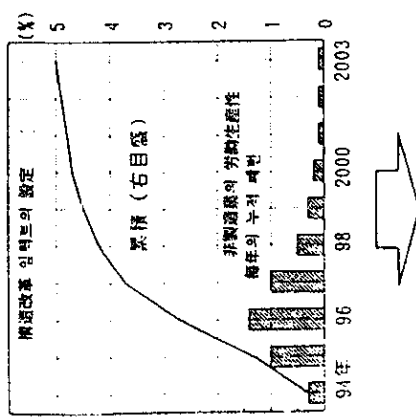
圖表 3 아시아諸國의 貿易構造의 諸段階

階段 國	開發途上國	未成熟 NIES	成熟 NIES	先進 工業國
韓國		□	△	○
대만	□			△-○
홍콩			□-△-○	
싱가포르			□	△-○
태국	□-△		○	
말레이시아	□-△	○		
필리핀	□	△-○		
인도네시아	□-△-○			
中國		△-○		
오스트레일리아	□-△-○			
日本			□	△-○

(注) 1965年...□, 1991年...△, 2000年(予)...○
 (出所) 野村総合研究所編 「아시아의 發展과 리스크」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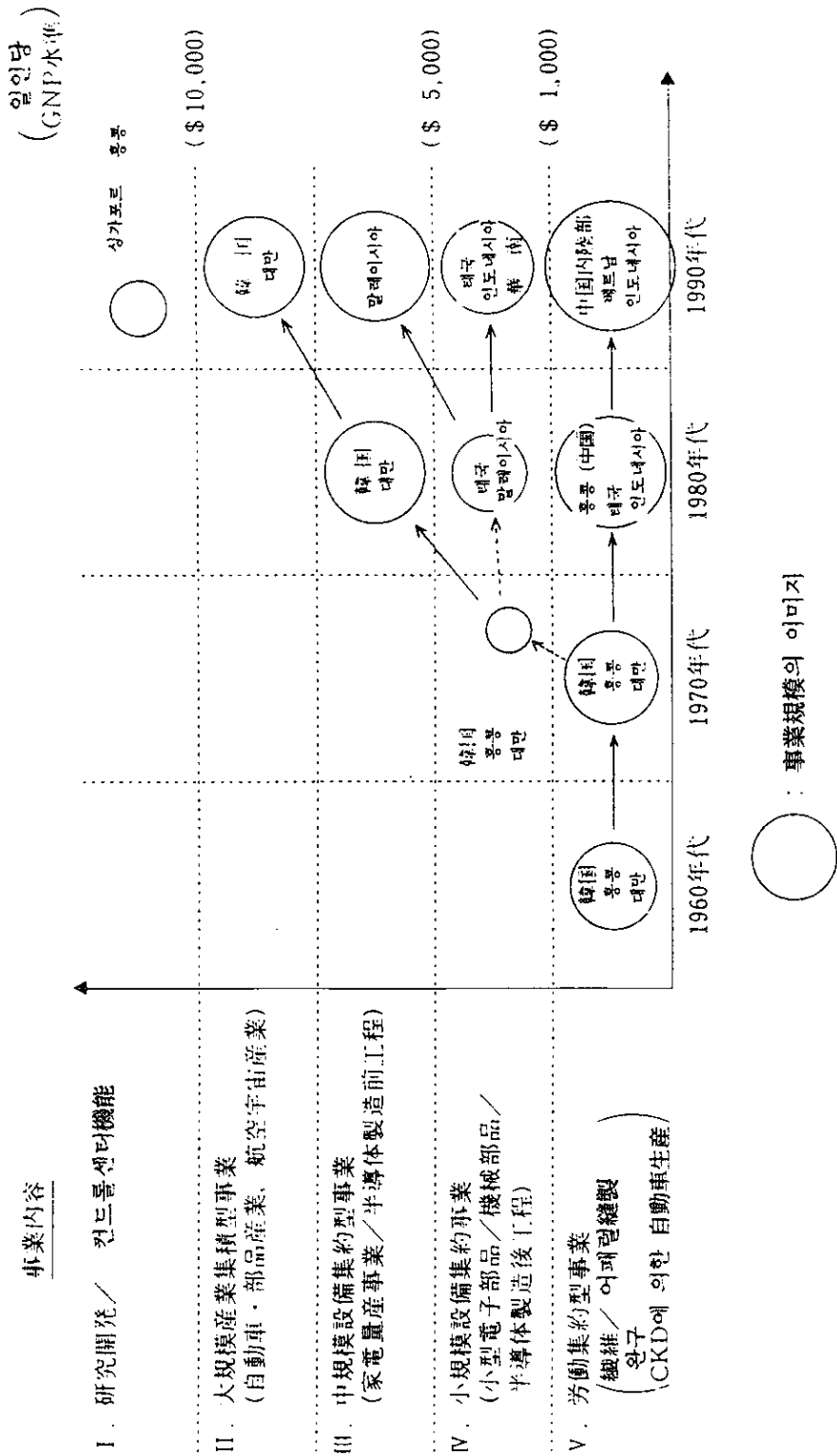
圖表4 매크로經濟 모델·시물레이션 -標準케이스와 構造改革 케이스의 비교-

構造改革으로 「相對消費物價 上昇의 國際水準」을 實現



(出所) (社) 經濟同友會編 「日本經濟の 構造改革을 詳하여 (最終報告)」 P9-10

圖表 5 日本企業의 아시아로의 시프트·시나리오



図表 6 今後5年間の 아시아事業戰略에서 重要視하는 国・地域 (アンケート調査)

	建設・製造	商業・서비스	建設・製造	商業・서비스	合計
中国	81.7 %	91.8 %	308 社	56 社	366 社
인도네시아	36.3	29.5	137	18	156
태국	30.0	26.2	113	16	130
베트남	27.6	34.4	104	21	125
대만	24.9	23.0	94	14	109
말레이시아	24.7	19.7	93	12	106
홍콩	14.3	47.5	54	29	83
韓國	17.5	16.4	66	10	76
싱가포르	15.9	16.4	60	10	71
필리핀	9.0	8.2	34	5	39
인도	5.8	3.3	22	2	24
캄보디아	0.5	0.0	2	0	2
合計	100.0 %	100.0 %	377 社	61 社	441 社

(注) 세계까지의 複數回答方式. 合計에는 業種未回答企業을 포함.

(出所) 野村総合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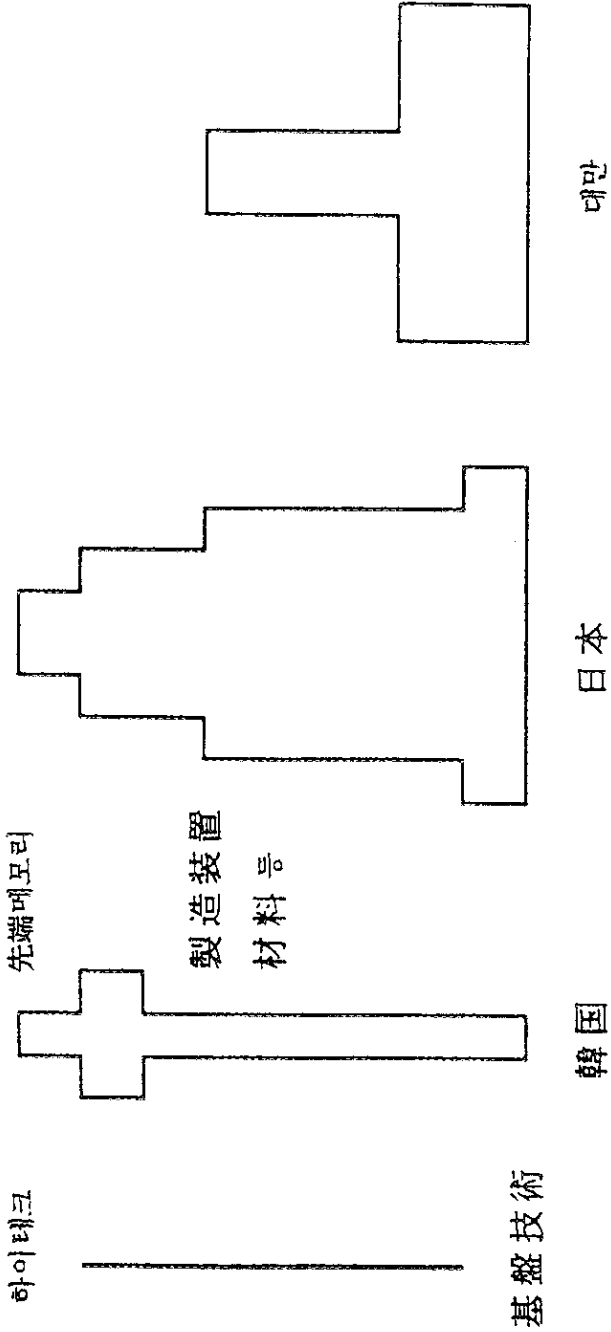
図表 7 日本の 対아시아直接投資

(単位：百万US\$)

	1989年度	1990年度	1991年度	1992年度	1993年度上半期	
					構成比	前年同期比
NIES						
韓国	4,900	3,355	2,203	1,922	1,228	5.6 (19.1)
대만	606	284	260	225	159	0.7 (19.5)
홍콩	494	446	405	292	120	0.9 (3.4)
싱가포르	1,898	1,785	925	735	618	2.2 (34.6)
	1,902	840	613	670	331	2.0 (2.5)
ASEAN4						
인도네시아	2,782	3,242	3,083	3,197	984	9.4 (-33.3)
말레이시아	631	1,105	1,193	1,676	439	4.9 (-30.6)
필리핀	673	725	880	704	223	2.1 (-53.0)
태국	202	258	203	160	53	0.5 (-56.2)
	1,276	1,154	807	657	269	1.9 (8.9)
中国	438	349	579	1,070	695	3.1 (57.6)
NIES + ASEAN + 中国	8,120	6,946	5,865	6,189	2,907	18.1 (-1.4)
美国	32,540	26,128	18,026	13,819	6,425	40.5 (-20.1)
欧州	14,808	14,294	9,371	7,061	3,912	20.7 (11.5)
世界合計	67,540	56,911	41,584	34,138	15,711	100.0 (-9.6)

(出所) 大蔵省

图表 8 日・韓・臺의 産業・企業構造、技術基盤 이미지 図



(出所) 野村総合研究所

〈제2분과회〉

(산업협력분야)

코 멘 트

小林 節雄 社長: 방금 소개받은 일본 피스톤링(주) 고바야시입니다. 패널리스트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저희 피스톤링 회사의 개요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각종 엔진 관련 부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본국내에서는 4륜 그룹메이커를 비롯한 건설, 농경, 범용등 각종 엔지니어메이커에 총매출액의 75%를 판매하고 있고 나머지 25%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벤츠, 포드를 주축으로 한 OEM메이커 혹은 보급시장용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관련 사업으로는 대만과 인도네시아에 조인트벤처 기업을 갖고 있고 한국과 중국, 인도에 각종 기술을 공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현황인식에 대해서는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미나구치 소장님의 말씀도 있었듯이 저희 회사의 현실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금까지 수출주도형의 성장전략을 갖고 있었으며 단기간 동안 아주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즉 시장을 개방해 왔던 미국을 비롯한 구미 각나라에서 보호주의와 지역주의가 급속히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기업은 계속되는 엔화강세와 여러국가들과의 무역마찰로 인하여 인건비가 싸고 잠재 수요가 큰 동아시아 국가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지역에 노동집약형 제품의 생산거점을 이행하면서 엔고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 혹은 투자대상으로서 그 대상국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로 대만과 한국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시다만 투자대상으로서의 목적, 혹은 역할이

라는 면에서 대만과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아시아와 대만,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완전히 별개로 치부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일본, 대만 차량산업교류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대만은 GATT가입에 따른 관세 대폭인하, 월남 혹은 일본과 어떻게 공생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았으며, 한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 대만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속해있는 자동차 관련분야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 잇달은 엔화강세와 무역마찰에 기인한 자주 규제등으로 인하여 국내외에서의 판매업적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조달, 현지 생산화로 코스트 다운을 도모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고 특히 부품관련 기업을 포함한 원자재, 생산공정, 물류등 모든 면에서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동안 전체의 15-20% 코스트 다운으로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 긴급 과제입니다.

저희 NPR 즉 일본 피스톤링(주)도 작년부터 원가절감 추진부를 신설해서 발본적인 코스트다운 추진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코스트다운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가 절감추진부를 신설, 발본적인 수평사고적 코스트다운을 도모하자고 했습니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업종, 예컨대 수출 비교 우위 산업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한국의 경우 전자·기기, 석유화학, 스포츠 관련용품등은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경영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관련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 대만, 일본 이 세나라를 각각 나눠서 생각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가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분업체제, 상호보완 협력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지연될 경우 세나라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국과 대만의 생산기술, 설비는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또 대만과 한국의 자동차 관련기업들은 일본기업과 상당히 연휴가 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공동 생존책을 생각해 낼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이 비교열위에 있는 제품의 생산을 이행한다면지 혹은 쌍방의 생산 효과를 높이고 양국의 무역불균형에 공헌할 수 있도록 조인트벤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총매출액의 40%를 일본이 사들이는 공존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쌍방의 협력으로 제3국의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 생산에 적합한 제3국에서 서로 협력을 함으로써 일본과 그리고 양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초고도의 각종기술을 일본측 제휴기업으로부터 한국과 대만이 흡수를 하면서 기술력을 향상 시킨다면, 아시아지역에 있어서의 공생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계가 한덩어리가 되어서 이를 위한 환경의 정비가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상 자동차 관련분야에서 본 기술이전 그리고 경제협력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正 社長 : 지금 소개받은 김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나구찌 사장님과 한 회장님의 주제발표를 듣고 느낀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양국간의 산업기술협력 관계는 지금까지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 이상의 깊은 협력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으로 한일국교정상화 30주년을 맞게되며 30년간 계속 현안문제로 제기 되어온 무역불균형문제는 양국간의 무역확대 균형을 통한 개선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한기술이전과 투자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2분과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기술협력에는 단순한 기술계약에 의한 기술협력과 직접투자를 통한 기술협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한 회장님은 그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충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본은 직접투자를 통한 기술이전을 선호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단순한 기술이전을 선호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본 현지에서 제가 실제로 체험한 바로도 일본기업은 기술이전보다는 직접투자에 의한 장기수익 보장을 선호하고 있으며, 한국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기술이전만이 아닌 직접투자를 통한 기술이전인 경우 장기적인 기술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일본기업이 부메랑효과를 염려하는 점인데, 과거 원활한 기술이전이 양국간에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에 부메랑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일본기업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부정적인면에 한국경제론이 대두되어 한일양국간 기술협력에 많은 마이너스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부메랑효과의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인 기술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현재 한국은 더욱 산업고도화를 이룩하였을 것이고 일본도 무리없는 산업조정을 이루어 더욱 산업고도화를 이루어 갔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 고임금, 노사분규, 원화가치 상승등으로 투자환경이 타경쟁국에 비해 불리해진 점은 인정하나 타경쟁국들도 발전과정에서 겪어야하는 같은 문제점으로 인식되므로, 오히려 주변국 중에서 한국은 경제발전과정으로 보나 지역적인 면에서나 하나의 경제권으로 과감한 산업조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주물의 경우도 이제는 일부 주물은 한국을 뛰어 넘어 중국으로 이전된 기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시기 적절한 기술이전이 양국의 산업조정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기업환경에 부정적인 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으나, 한국에서 성공한

성공기업사례를 발표하여 일본기업이 대한투자증대에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많은 시간을 갖고 조정하는 양국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마에가와 리포트가 발표됐을때 일본사회에서는 큰 호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상당한 부분이 현실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현재와 같이 어려운 국제경제질서에서 더욱 빠른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버블경제 이후의 불안과 계속되는 엔고속에서 지금까지 보다는 더욱 빠른 산업구조 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양국간의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세계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나구찌 사장님께서 최근의 산업조정 및 직접투자 흐름이 NIES에서 아시아, 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최근 첨단기술분야에서 한일양국간 공동개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여타 NIES나 아세안과는 다른 한국의 산업기술 수준에 맞는 부분에서의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이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나구찌 사장님께서 일본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규제완화, 규제철폐, 시장개방, 내외 가격격차 해소를 들으셨는데 저도 그것에 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으며 토론시간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세계경제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최근 한일 양국은 경제문제의 해결은 경제원리로 해결해 나간다는 기본방침하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양국의 산업구조조정의 바탕위에서 경제원리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高輪 裕通 副本部長 : 방금 소개받은 가와사키 중공업의 다카와라고 합니다. 제 2분과회의 패널리스트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일 양대표의 기초보고와 같이 아시아는 한일양국에게 있어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아시아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양국의 기술이전, 경제협력을 위한 책임이 대단히 중대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공통적으로 인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와사키 중공업 입사이래 플랜트비즈니스에 관계하여 온 저의 경험에 비추어, 기술이전과 경제협력이라는 두가지 사항에 대해 플랜트 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합니다.

플랜트비즈니스에서 기술이전 형태는 일반적으로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첫째는 플랜트수출은 본질적으로 기술이전을 수반하는 비즈니스라는 것입니다. 플랜트수요는 상대방국가의 산업발전단계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일반적으로 시멘트플랜트, 제철플랜트, 석유화학플랜트로 모두 이런식으로 수요의 중심은 이행되어 나갑니다. 이 수요의 이행에 따라서 플랜트기술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기술, 조업기술, 보수기술같은 것이 이전되며 그리고 공장전체의 생산관리기술, 경영관리기술과 같은 소프트웨어면에서의 기술도 이전됩니다.

그리고 플랜트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 기기를 수입국이 국산화하기 위한 기술지도로 이루어 집니다. 플랜트 비즈니스는 설비를 납품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술을 토탈형태로 제공하는 이른바 산업노하우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플랜트메이커 자신의 전력의 하나로서 기술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플랜트비즈니스는 그 무대가 바로 세계시장입니다. 이무대에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자원으로서는 상대방 국가 혹은 제3국가의 경우도 있으며, 상대국가와 제3국이 조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비교우위라고 하는 기본입장에 선 기술이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젝트수행 과정에서 현지기업을 기용하고 수출상대국이나 제3국으로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기기를 조달하고, 출자를 한다든지 혹은 합작형태로 기기생산거점을 정비한다든지 혹은 설계거점을 현지화하는 것등을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랜트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경제협력의 사례로서 제자신이 위원을 맡고 있는 일한·한일플랜트수출협력 회의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일간의 플랜트수출협력의 현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랜트수출협력회의는 1983년도에 첫번째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이후 매년 1번 개최됩니다. 사무국은 일본측이 일본기계수출조합, 한국측이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입니다. 멤버는 한일양국의 플랜트메이커, 엔지니어링회사, 수출입은행, 상사등이며 한일합해서 약 40개의 멤버사가 있습니다.

본회의의 목적은 양국 플랜트수요의 현황, 수출관련제도, 제3국으로의 수출협력 가능성등을 토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국의 플랜트수출 관련제도 소개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만, 회의를 거듭함에 따라서 해외조달이라든지 프로젝트면에서의 수출협력가능성 혹은 특정한 제3국시장을 대상으로한 각종분석, 플랜트수출에 있어서의 한일간의 자금협력 가능성등으로 그 토의내용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일양국의 플랜트 수출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플랜트수출은 감소 경향에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 자신이 플랜트 수입국이 아니라 플랜트 수출국으로 이행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플랜트 수출액을 볼 경우 그것이 확연한데 '80년대에는 연간 5 - 15달러로 추이를 했었는데 '92년도에는 약 26억달러 그리고 '93년도 상반기에는 18억달러로 한국의 대외수출플랜트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플랜트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한일양국의 관계는 과거에는 한국측의 일본에 대

한 부품공급 그리고 기기공급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수직분업에서 수평분업으로 관계가 그레이드업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조달해오는 금액을 보면 '85, '86년도에는 년 평균 8백만달러였는데 '87 - '89년도에는 년평균 2천 3백만달러로 늘어났고 그리고 '90 - '92년 사이에는 년평균 약 4천 6백만 달러로써 '90 - '92년에는 약간 감소 혹은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반대로 양국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플랜트수출을 할 경우 '85, '86년도에는 년평균 3천 6백만달러이었던 것이 '90 - '92년에는 년평균 3억 6천만달러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플랜트 비즈니스의 한일 양국기업의 협력 기회라는 것은 앞으로 아시아의 발전과 더불어 가일층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일간의 기술이전, 경제협력의 하나의 형태를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金都亨 所長 : 방금 소개받은 산업연구원 김도형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양국의 협력방향을 구체화하여 사업으로 진척 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두분의 말씀이 거의 대부분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분에 대한 질문이나 코멘트가 아니라 총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불황하에 있는 일본경제의 모습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와 주식을 중심으로 한 신용경제시스템의 붕괴과정에 따른 휴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모두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위 미니버블도 심심치 않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될 토지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포기한 것인지 어떤지 평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조정이 일본에서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제조기업을 조사해 보

면 40%이상이 고용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미와 같은 본격적인 고용조정을 할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高코스트의 체질자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핵심적인 파트가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엔화강세라는 것이 비록 다플레 요인하에서 물가하락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역수지 흑자구조를 시정하고 산업구조를 전환시키는 중요한 메카니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네차례에 걸친 엔화강세 구조가 구조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관찰해 보면, 점점시기가 감에 따라서 무역수지와 산업구조조정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래서 개혁에 주된 시나리오가 여기에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환율의 2중구조와 산업별 생산성의 2중구조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인과 관계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전자는 후자의 결과이지 그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점에서 생산성이 낮아 물가상승의 압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비제조업분야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의 노력이야말로 일본의 구조개혁의 핵심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이겠습니다만, 미국이나 區州와 달라서 일본의 경우는 지나치게 하드웨어 중심의 사회 간접자본투자가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는 것은 한국의 건설시장 참여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역시 사회간접자본 한 단위를 투자하더라도 생산성을 높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을 정비하는 것은 좋지만 말하자면 소프트웨어와 조화를 이룬 사회간접방면의 투자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투자와 기술이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역내에 있어서 앞으로 2000년을 향해서 지향해야 될 최종의 목표는 제품별로 역내에 있어서의 고도의 생산거점을 집약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표로 양국이 현재 산업협력정책을 조화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역내에 있어서의 각국별 산업구조고도화의 독자적인 시나리오와 일본의 직접투자 시나리오가 미스매치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미나구찌 사장께서 제시하신 산업구조 조정, 규제완화철폐, 시장개방 등의 노력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양시나리오가 매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결코 일본이 완셋트 주의를 버리지 않고 있으며, 결국 산업능동화 우려가 여전히 불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이 저하되면 직접투자가 진척이 되었다가 다시 철회하는등 상당히 불안정한 직접투자라고 보았을 때 이러한 시나리오상의 갭이 결코 단기간에 조화를 이룰 수는 없는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미나구찌 사장께서 종결 부분에서 이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만, 무역과 투자와 기술이 유기적으로 종합될 수 있는 산업과 무역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직접투자를 하더라도 그것을 자국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해온 종래의 정책을 과감히 불식할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고 코스트의 체질이며, 이것이 수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약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구미 시장의 효율성등을 일본도 도입하여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는데 다소나마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일협력과 관련사항입니다. 일본의 아세안에서의 서포팅인더스트리의 지원, 그 스킴에서 우리 한일간에도 적용을 해보자는데서 서포팅인더스트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서포팅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주변산업, 우리에게 부족한 산업을 모두 서포팅인더

스트리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불충분하지만 양국의 부품산업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의 체계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역시 무역의 인바란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무역의 인바란스를 시정해 나가는 것이 이 부품산업협력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양국 협력의 체계가 스킴이 구상이 되었으면하는 바람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두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아세안에 대한 일본의 스킴과 한국에 대한 스킴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이미 투자환경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나구찌 사장께서는 아세안 역내에 있어서의 각국의 투자인센티브가 평균화되는 경향에 있기 때문에, 투자인센티브의 평준화를 통해서 일본의 직접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해 가는 것이 역내 분업구조를 상당히 고도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내라 하더라도 경제발전단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국의 산업발전정책이 다른 것입니다.

즉 한국의 경우는 이미 어제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고도기술수반사업에 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여타분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공 보다는 우리의 기술력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이 지향하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산업구조고도화정책, 국제협력의 방향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작년부터 자주 대두되고 있는 양국간의 전략적 제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략적 제휴의 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일본의 對韓直接投資, 아세안의 직접투자에서 많은 경험을 살려야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직접투자 패턴이 주로 저임금을 목표로 한 진출이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단기간에 수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약하며,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의

환율이 절상되고 고임금이 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이 들어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상호간에 메리트를 누릴 수 있는 기간동안에는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메리트가 소멸될 때는 언제든지 투자국에서 철회해 가는 것이 전략적제휴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그와 같은 것을 정부가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지만 특히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잦은 철회와 진출철회를 반복하는 사례는 양국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력에 의해서 상당히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략적제휴가 과연 우리의 장기목표인 무역불균형시정에 어느 정도 공헌할 수 있는가를 본다면,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오히려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자국의 수출확대보다 한국 국내진출, 국내판매에 목표를 둔다면 한국에 대한 진출도 더 높아질 것이고 한국의 대일진출노력이 부진하면 무역불균형 이상으로 전략제휴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양국의 시장진출은 2000년대에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러한 경향을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가지 제휴사업을 앞으로 한일기술협력재단이 창구가 되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은 현재 일본의 재단사업에서 중요한 공헌의 하나로서 우리 한국의 부품산업에 중요한 전자부품 공작기계 분야를 작년에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투자개발조치에 대해서 절반이상은 전혀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제가 볼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부족이기도 하지만, 일단 한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무엇인가 한국에 대한 불만이 누적이 되어서 한국의 투자환경노력 자체를 잘 눈여겨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5월부터시작되는 투자유치단의 노력등을 통해서 많이 불식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合 同 分 科 會

(交流增進分野,其他)

〈共同議長〉

韓國側：梁 在 奉 大信GROUP 會長

日本側：館 薨 夫 三菱自動車工業(株) 取締役相談役

第26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

THE 26TH JOINT CONFERENCE OF KOREA-JAPAN & JAPAN-KOREA ECONOMIC COMMITTEES

1994. 4.14~16 FUKUOKA JAPAN

〈合同分科會 主題〉

(交流增進分野)

韓日兩國의 地方間 交流 現況과 展望

(財) 東南開發研究院

院長 姜 泳 琇

I. 序 說

1. 兩國間의 交流 全般的인 趨勢

韓日兩國間에 相對國의 訪問者를 보면, 1970年度 韓國人의 日本訪問이 71,790名, 日本人의 韓國訪問이 45,269名, 1980年度는 前者가 212,973名 後者가 428,008名이었다.

그런데, 1990年度에는 韓國人의 日本訪問이 978,984名 日本人의 韓國訪問이 1,369,189名으로 1970年度에 비하면 各各 約14倍, 約30倍 늘어났으며, 1992年度 現在 韓國人의 日本訪問이 1,094,724名, 日本人의 韓國訪問이 1,314,540名으로 兩國모두가 相對國 訪問者數는 100萬名을 上廻하고 있다.

< 表 1 > 年度別 兩國間 相對國 訪問者數

年 度	區 分	韓國人의 日本訪問者數(名)		日本人의 韓國訪問者數(名)	
			增加率(%)		增加率(%)
1970		71,790	100	45,269	100
1975		125,618		319,984	
1980		212,973	297	428,008	945
1985		296,708		480,573	
1990		978,984	1,364	1,369,189	3,025
1991		1,097,601		1,369,211	
1992		1,094,724	1,525	1,314,540	2,904

資料：日本出入國管理統計年報

2. 兩國 地方間 交流의 傾向

이와 같이 韓日國交正常化 이후 韓日 兩國間의 相互訪問者數는 괄목할 정도로 增加하고 있는데 비하여 韓日 兩國間의 地方次元의 國際交流는 그렇게 活性化되고 있지 않다.

日本の 경우 10여년 前만 하더라도 國際化時代라는 말은 무성하였지만, 地方次元의 國際化는 活潑하지 않았으나 점차로 國際化 政策을 展開해오면서 現在는 大部分의 廣域地方自治團體에 『國際化』와 관련된 部局을 設置하고, 또한 (財)國際交流協會나 國際交流센터를 設立·運營하면서 현재는 蘆漁村의 조그마한 마을까지 國際交流가 활발하게 展開되고 있다.

이는 日本이 地方自治가 하나의 制度로서 완전히 定着되어 地方次元의 國際化, 즉 地方化와 國際化가 맞물려서 地方間의 國際交流가 活性化되고 있는 것으로 그야말로 世界 諸都市間의 競爭時代에 突入함을 미리 豫測하여 이에 能動的으로 對應하는 하나의 方法으로 地方의 國際化 및 地方次元의 國際交流를 積極적으로 展開해 온 결과라 하겠다.

이에 비해 韓國의 경우는 地方自治制度의 未實施로 地方政府 次元의 國際交流는 극히 미진하고, 그것도 中央政府의 許可事項이 많은 까닭에 그 地域住民의 意思와는 關係없이 中央政府의 判斷下에 交流事業을 制限적으로 展開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韓國도 1995年 地方自治團體의 長選舉를 계기로 地域發展을 위한 綜合적인 政策 가운데 國際化 政策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질 것인 바, 이러한 國際化事業역시 地域住民의 意思結案으로 立案되고 團體長을 중심으로 그 政策이 展開될 것이 예상되므로, 團體長은 中央보다는 오히려 地域住民에 대한 責任行政을 펼 수 있는 時期가 도래함에 따라, 國際化 趨勢에 맞추어 韓國도 各 地方次元의 國際交流가 活性化되리라 본다.

II. 兩國 地方間 交流의 現況

— 釜山과 九州、山口 地方間을 中心으로 —

1. 釜山市와 姉妹都市(下關市, 1976.10.11結緣), 行政協定都市(福岡市, 1989. 10. 24 結緣) 등과의 交流

1) 韓日體育交流

① 對象地域：下關市, 福岡市, 北九州市

② 交流回數：13回

③ 交流人員：11個種目 437名(學生部, 一般部)

④ 都市別 交流內容

- ・ 下 關 市：8回 8種目 312名(陸上, 蹴球, 野球, 테니스, 排球, 핸드볼, 劍道, 요트)
- ・ 福 岡 市：4回 4種目 107名(蹴球, 테니스, 籠球, 볼링)
- ・ 北九州市：1回 18名(卓球)

2) 韓日親善 어머니排球大會

- 釜山市와 下關市の 어머니들의 排球大會를 통하여 親善圖謀와 民間外交로 韓日兩國의 友宜를 增進하기 위하여 兩市 隔年制로 開催함.

3) 公務員 交換勤務

- 下關市, 福岡市로 부터 各 1名씩을 釜山市에 派遣하고 釜山市에서도 1名씩 派遣하여 1年單位로 交換勤務를 함.

4) 韓日觀光交流展

- 1984年 이후 매년 下關市, 福岡市와 釜山市가 定期的으로 觀光交流展을 개최하여 韓日間の 觀光情報에 대하여 弘報活動을 함.

5) 青少年交流

- 韓日 青少年間 親善圖謀와 國家間의 理解를 增進시키고 兩國의 青少年 施設에 대한 相互見學과 青少年 關聯 情報交換을 함. 1984년부터 시행하여 왔는데 '94年 8월에 日本에 派遣, '94年 9月 招請 豫定.

6) 韓日海峽沿岸 市道縣間의 水産交流

- 韓日海峽沿岸 市道縣間에 水産全般에 관한 相互技術情報를 交換할 목적으로 7個市道縣知事會議提案事項을 1993年 이후 隔年制로 實施.

7) 韓日海峽沿岸 市道縣間의 環境關聯 技術情報 交換會議

- 7個市道縣知事會議 提案事項으로 海洋汚染 防止對策, 산성비의 共同研究, 都市쓰레기 減량화 등을 위한 交流會議로 1993年 이후 계속 開催.

8) 韓日親善女性交流會

- 釜山市와 福岡市가 1990년부터 隔年制로 實施하는 것으로 兩市間의 友好 增進 및 國際化 時代에 부응한 先進女性像을 定立함.

9) 住宅行政交流會議

- 釜山市와 福岡市間의 住宅行政 情報交換과 共通的인 問題解決方案을 강구하고 兩市의 相互理解와 友宜增進을 圖謀함.

10) 市立藝術團 韓日交換公演

- 釜山市와 福岡市가 定期的으로 市立藝術團의 韓日交換公演을 함.

11) 韓日海峽地域 商品展示會

- 韓日海峽沿岸 7個市道縣知事會議의 提案事項으로 各 地域 輸出有望優秀商品을 선정 輸出하여 展示會를 1994年 11月에 開催 豫定.

2. 韓日海峽沿岸 市道縣知事會議

1) 知事交流會議의 趣旨와 目的

【 趣 旨 】

- '91. 1. 韓日頂上會議에서 合意된 “未來指向的인 韓日關係”의 構築과 관련하여, 九州3縣과 韓國南部海岸의 1市3道間의 交流促進을 위한 自治團體長會議를 갖는 것은 韓日兩國의 友好增進에 寄與할 것이며, 또한 21C 亞細亞太平洋時代를 韓日兩地域이 함께 準備함에 그 趣旨가 있다.(知事交流會議 結果報告書, 釜山直轄市)

【 目 的 】

- 韓日自治團體間의 友好와 理解增進을 위하여 文化、스포츠、靑少年交流 등의 活性化方案을 摸索하고 産業、經濟、技術人力の 相互研修 및 技術情報의 交換 등을 통하여 兩地域의 經濟를 活性化시키는 方案을 討議함에 그 目的이 있다.(知事交流會議 結果報告書, 釜山直轄市)

2) 第1、2回 知事交流會議의 開催

① 第1回 知事交流會議

- ・ 期間：1992. 8. 24 ~ 8. 26(3日間)
- ・ 場所：濟州道
- ・ 參席市道縣
 - ┌ 韓國側：釜山市, 慶尙南道, 全羅南道, 濟州道
 - └ 日本側：長崎縣, 佐賀縣, 福岡縣
- ・ 參席人員：總52名(韓國 29名, 日本 23名)
 - ※ 釜山市：6名(市長, 內務局長 外 4名)
- ・ 會議運營(8.25 本會議)
 - ┌ 市道縣 知事提案發表 및 交流事業 討議(議長：濟州道知事)
 - └ 實務幹部會議(主宰：釜山市內務局長)

② 第2回 知事交流會議

- ・ 期間：1993. 5. 31 ~ 6. 2(3日間)
- ・ 場所：佐賀縣
- ・ 參席市道縣
 - ┌ 韓國側：釜山市, 慶尙南道, 全羅南道, 濟州道
 - └ 日本側：長崎縣, 佐賀縣, 福岡縣
- ・ 參席人員：總54名(韓國 16名, 日本 38名)
 - ※ 釜山市：4名(市長, 國際協力擔當官 外 2名)
- ・ 會議運營(6.1 本會議)
 - ┌ 市道縣 知事提案發表 및 交流事業 討議(議長：佐賀縣知事)
 - └ 實務幹部會議(主宰：佐賀縣總務部長)

3) 知事交流會議 各市道縣別 提案事項

市、道、縣別	知 事 交 流 會 議 提 案 事 項	
	第 1 回 (1992年)	第 2 回 (1993年)
釜山直轄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古代遺物 交換展示 ○ 青少年交流의 擴大 ○ 地域經濟交流(通商使節團 交換, 經濟情報誌 發刊) ○ 技術人力研修交流 ○ 公害防止 技術交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個地域 代表的 研究所間의 共同調查、研究 - 7個地域研究機關의 聯合體 構成 - 地域發展을 위한 交流事業 研究 - 地方自治團體 및 民間團體의 協力誘導 - 韓日海峽沿岸 一周의 觀光루트 開發에 대한 共同研究 - 海峽沿岸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共同研究 - 經濟、技術分野 交流를 위한 共同調查研究 - 共同研究資料의 發刊 ・ 經濟分野의 實質的인 交流擴大 - 兩地域 中小企業間의 異業種 交流 活性化 - 兩地域 共同參與하는 商談會、商品展示會 開催
慶尚南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青少年交流 및 知事會議 實務協議體 構成 ○ 古代文化交流에 관한 學術세미나 開催 ○ 經濟、技術의 交流協力 ○ 水産振興協力強化 및 觀光交流 擴大 ○ 우루과이라운드 共同對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林業技術交流의 擴大 ・ 漁業環境改善을 위한 共同研究 ・ 農業技術研修團과 農民後繼者의 相互交流 擴大

市、道、縣別	知 事 交 流 會 議 提 案 事 項	
	第 1 回 (1992年)	第 2 回 (1993年)
全 羅 南 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分野의 交流 ○ 民間次元의 文化、學術 交流의 擴大 ○ 公務員 및 靑少年의 交流 ○ 地域經濟交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日海峽沿岸 市道縣間의 優秀 商品 商談會 開催
濟 州 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觀光交流 ○ 文化藝術交流 ○ 常設商品展示館 開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域商品展示會의 開催 ・ 水産技術의 交流 ・ 女性의 研修交流
長 崎 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靑少年、스포츠 交流 ○ 觀光交流를 위한 對馬 島와 韓國間 定期船 運行 ○ 水産 및 養殖技術의 交流 ○ 市、道、縣 知事會議의 定例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馬島에 『芳州外交塾』의 設置
佐 賀 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文化交流 ○ 靑少年、스포츠 交流 ○ 農業과 漁業關聯 情報 交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日海峽沿岸經濟交流會議의 開催 ・ 地方行政 事情의 理解를 위한 視察 및 情報交換 ・ 文化 및 技術 交流
福 岡 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靑少年交流의 擴大 ○ 學術、文化의 交流 ○ 産業、技術의 交流 (公害防止、環境保全 技術 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觀光振興에 관한 共同研究(韓日 海峽沿岸廣域 觀光圈의 共同 研究)

3. 民間交流

1) 로타리클럽간의 親善交流

- 釜山로타리클럽과 下關市로타리클럽이 1969年 4月 30日 姉妹結緣後 每年 1回 15名 정도가 相互親善 交歡訪問

2) JC간의 親善交流

- 釜山JC와 福岡JC가 1962年 4月 20日 姉妹結緣後 每年 1回 15名 정도가 相互親善 交歡訪問

3) 韓國 靑少年 釜山聯盟의 靑少年交流

- 1988년부터 韓國靑少年 釜山聯盟이 韓日靑少年交流를 통한 國際感覺의 배양과 民泊을 통한 文化의 理解 및 友好親善을 도모하기 위하여 福岡市 및 近畿地域을 訪問

4) 韓國海洋靑少年團 釜山聯盟의 靑少年 交流

- 1991년부터 九州를 비롯한 日本全域을 訪問하며, 靑少年 活動에 관한 靑少年 交換 및 兩國의 親善 圖謀를 함.

5) 韓日親善交流會議

- 下關市와 1985年 이후 隔年制로 會議를 開催하여 兩國의 親善交流 및 交換프로그램을 實施함.

6) 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의 交流活動

- 1988年 이후 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는 日本 全域에 걸쳐 積極的인 交流活動을 展開하여 지금까지 約 2,000名에 해당하는 兩國의 企業人, 敎員, 靑少年, 文化人, 기타 一般人들이 相互交流를 해왔는데 그 중 九州地方의 福岡, 佐賀, 長崎, 熊本, 鹿兒島, 宮崎 등과의 交流가 차지하는 비중은 日本 全地域의 約 1/2에 해당함.

Ⅲ. 兩國 地方間 交流의 活性化를 위한 提案

提 案 項 目	日 本 側 에 대 한 提 案	韓 國 側 에 대 한 提 案
○ 自治團體間의 交流	・美國이나 유럽地域에 상응하는 아시아圈과의 積極的인 交流를 할 것.	・相對地方이나 都市의 면적, 인구규모 등의 그 格이나 形式을 의식하지 말고 內容이 알찬 交流를 할 것.
	・最初의 盛大한 交流에서 점차적으로 縮小되어가는 交流보다는 작은 規模로 시작하여 그 方法이나 內容을 충실하게 擴大시켜 나갈 것.	
	・官主導보다는 民主導의 交流를 장려할 것.	・團體나 機關의 指導者 교체로 長期間에 걸친 交流를 중단한다든가 交流프로그램의 갑작스런 變更을 지양할 것.
○ VISA 問題	・兩國共히 No VISA制度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韓國人의 日本國內 不法就勞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方案을 摸索할 것.	
○ 宿泊施設	・현재 全國 數百個所 있는 國民 宿舍를 外國人들에게 積極 開放할 것.	・저렴한 유스호스텔을 장려하고 施設의 確保 및 效率的인 운영이 可能하도록 制度的으로 뒷받침할 것.
○ ONE TICKET 制度	・九州 Rail Pass(5·7·9日間), Japan Rail Pass(7·14·21日間) 및 韓日共同乘車券에 대한 積極的인 弘報와 路線의 範圍를 最大한 擴大할 것.	

提 案 項 目	日 本 側 에 대 한 提 案	韓 國 側 에 대 한 提 案
○ 言 語 및 交 流 施 設 問 題	・ 韓 國 語、英 語 專 門 要 員 의 確 保	・ 日 本 語、英 語 同 時 通 譯 人 의 養 成 ・ 國 際 交 流 에 適 合 한 施 設 을 갖 춘 會 館、센 타 確 保
○ 交 流 經 費 問 題	・ 같 은 條 件 으 로 對 等 한 交 流 를 爲 한 相 互 招 請 者 負 擔 形 式 을 採 用 할 것.	・ 地 方 自 治 團 體 및 民 間 交 流 團 體 의 交 流 行 事 豫 算 制 度 確 立
○ 民 泊 에 대 한 意 識 變 化	・ 現 在 家 庭 의 有 着 者 的 으 로 變 換 시 킬 수 有 한 姿 勢 을 確 立 시 킬 것.	・ 不 均 等 이 不 是 한 平 等 한 家 庭 에 서 도 民 泊 이 可 能 하 다 는 認 識 轉 換
	・ 相 互 理 解 와 國 際 親 善 의 基 礎 이 變 換 시 킬 수 有 한 姿 勢 에 대 한 積 極 的 인 弘 報	
○ 次 世 代 國 際 交 流	・ 比 較 的 各 地 方 의 靑 少 年 國 際 交 流 가 活 躍 하 지 만 高 校 生, 中 學 生, 國 民 學 生 들 間 의 交 流 프 로 그 램 을 積 極 開 發 할 것.	・ 指 導 者 級 交 流 는 國 家 次 元 의 事 業 으 로 하 고, 靑 少 年 交 流 는 地 方 次 元 에 서 活 性 化 된 수 있 도 록 할 것.
	・ 兩 國 靑 少 年 들 이 相 對 國 으 로 修 學 旅 行 等 團 體 旅 行 을 할 때 鐵 道 料 金 等 諸 經 費 의 割 引 制 를 導 入 할 것.	

IV. 兩國 地方間 交流의 展望

韓日兩國은 다소의 質的、量的인 차이는 있지만 다같이 地方化、國際化 時代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까지 兩國의 地方間 交流는 日本側에서는 多樣的인 프로그램으로 비교적 적극적으로 展開해 왔지만, 현재는 10年이상 쌓아올린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보다 內容이 알찬 交流協力事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韓國은 來年부터 實質的인 地方自治制度의 實施와 더불어 國家的 次元은 물론 地方에서도 國際化를 향한 봄이 일어나고 있다.

韓日兩國에 있어서 바람직한 地方間 交流는 兩側이 동시에 積極的인 交流意思를 가짐은 물론 國際交流를 위한 條件이 정비된 狀況下에서 가능하리라 보는데, 지금까지 흔히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日本의 積極的인 姿勢에 비하여 韓國은 消極的이었고, 國際交流를 위한 輿件이나 분위기면에서도 적정한 均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韓日兩側은 한정된 범위내에서라도 國際交流를 위해 노력하여 國際化、地方化 時代에 있어서의 不充分하지만 各 地方 나름대로의 實績을 쌓아온 것이 사실이다.

韓國側의 國內의 狀況變化(國際化、地方化)에 따라서 적어도 지금부터는 兩國의 地方間 交流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活性化되어 갈 것으로 展望되며, 특히 BESETO와 本 研究院에서 構想하고 있는 BPS Belt의 交叉中心地가 될 釜山과 九州、山口 地方의 向後 役割이 크게 期待되는 만큼 兩地方間의 交流展望은 대단히 밝을 것이다.

第26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

THE 26TH JOINT CONFERENCE OF KOREA-JAPAN & JAPAN-KOREA ECONOMIC COMMITTEES

1994. 4.14~16 FUKUOKA JAPAN

〈合同分科會〉

(交流增進分野)

韓國生産性向上 프로젝트事業의 指導를 받은 企業의 事例發表

東 炫 産 業 (株)

代表理事 朴 奉 奎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해 있는 東炫産業 株式會社의 代表理事 朴奉奎입니다.

저희 회사는 1982년 서울 당산동에 있는 現代自動車서비스株式會社의 FILTER 공장을 인수하여 설립된 회사로 自動車用 AIR FILTER 및 OIL FILTER를 주력제품으로 생산해온 종업원 100명 규모의 部品生産型 中小企業입니다. 1986년에 현재 저희 회사가 위치해 있는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업단지로 공장을 '新築' 移轉했으며, 1987년에는 공장품질관리2등급 ("품"字)을 AIR FILTER 와 OIL FILTER에 대해서는 「KS표시허가」를 각각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 8월에는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있는 同種企業의 工場을 引受하였으며, 그곳에 제2공장을 증설해서 현재는 2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93년도 總賣出額은 66억원을 달성하였으며, '94년에는 賣出目標 113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전직원이 단결하여 총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저희 회사가 外的인 成長은 거듭하고 있지만 內的으로는 生産性 및 品質向上의 鈍化와 체감현상이 도래하고, 내수 위주 기업 형태에서 오는 國內市場 開拓의 限界点에 봉착되어 회사경영 전반의 劃期的인 轉換이 必要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日韓産業技術協力財團의 주도하에 실시되었던 韓國生産性向上 프로젝트事業은 회사 전체 분위기를 바꾸고 침체되어 가는 生産性 및 品質向上을 다시 圖謀할 수 있는 좋은 契機가 되었습니다.

본 生産性向上 프로젝트사업은 1993년 8월 30일 부터 9월 11일 까지 1차로 시행되었고, 2차로 동년 10월 4일 부터 10월 9일 까지 총 3주간 韓國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會社에서 施行이 되었습니다.

시행전에 日本專門家들이 저희 회사를 먼저 방문하여 工場視察과 面談을 실시하였는데 그때 저희 회사에서는 전문가들에게 生産性向上 프로젝트사업지도를 施行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저희 회사가 국내전문가로 부터 지도를 받은 經驗을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이 賣續爲主의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는 指導로 끝났기때문에 이번 지도는 단기적인 효과와 실적구축을 위한 문제점만 지적하는 지도가 아닌, 日本에서의 經驗을 살려 「既存의 設備를 어떻게 活用할 것인가?」 「品質向上을 위해서는 우리 會社에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管理者와 現場 從業員의 役割은 어떻게 改善되어야 하는가?」 「專門家들이 지도를 마치고 돌아간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具體的인 改善方案의 提示」 등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日本 専門家들이 제일 처음 실시한 것은 반장급 이상 중간관리자 18명에 대한 個別 面談이었습니다. 면담시간은 1인당 약 1시간 정도이었습니다.

面談結果는 모두 會社의 問題點이 무엇인지 把握하고는 있었으나 실제로 적당한 改善方法을 모르기 때문에 具體的인 問題解決 方法을 指導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자를 포함한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意識調査 및 5S인식도 設問調査를 實施하였는데 임금보다는 安全하고 清潔하면서 밝고 활기찬 職場에서 일을 함으로써 자신을 向上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주된 內容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실시한 똑같은 내용의 設問調査 資料를 比較해 본 결과 韓國이나 日本이나 근로자들이 각각 會社에 원하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하였고, 자유기업난에 가입된 내용을 보면 日本 勤勞者쪽이 더 강하게 自身の 會社를 批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經營改善資料로 有効하게 活用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대리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管理者의 役割 및 강한 팀의 조직법과 5S에 대해서 약 12시간 정도 教育을 받았었는데 우리가 알고도 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고 意慾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좋은 機會가 되었습니다.

技術改善에 관한 指導는 공장합리화에 관한 사항, 프레스공장에 대한 2단계 개선방안 조언, 필터조립라인의 3단계 개선방안 조언, 공장 LAYOUT의 사고와 설비전반에 대한 現在의 問題點 및 向後 方案 提示등이었는데 대부분 기존의 설비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指導 助言이었습니다.

品質保證, 品質管理 向上에 관한 事項으로는 품질향상에 관한 협력방안 조언, 품질관리 데이터 활용방법 및 분임조활동에 관한 助言등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에 남는 일은 不良品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변화를 目的으로 不

良品削減大作戦을 實施한 것인데, 작업표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전부 不良으로 수집하여 본 결과 1일 全體生産額의 약 15%가 不良으로 추출되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보면 現場従業員 1일분 給料에 해당되는 金額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심하게 수리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일들이 原價에 얼마나 큰 影響을 미치는지 깨닫는 契機가 되었고, 조그만한 이상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는 생각들이 改善提案을 活性化하는 좋은 動機가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指導 받은 내용은 이상과 같이 마치고 다음에는 指導를 받은 所感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日本 専門家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生産性向上 指導를 하기로 되어 문화적인 이질감에서 오는 理解不足과 言語疏通의 불편함을 어떻게 克服해야 될지가 걱정이었으며, 또 이러한 問題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指導效果가 있을지 疑問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걱정에는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전문가들과의 면담중에 원했던 바와 같이 指導를 한다면 보다는 協力을 하는 立場에서 저희들과 개선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비록 말이 통하지 않았어도 서로 불편함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한국생산성향상 프로젝트사업의 추진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문가들로부터 감명받았던 것은 뛰어난 技術도 아니었고 高齡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精力的이고 責任感있게 誠實히 일하는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진정 배워야 할 것은 技術 보다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일본인의 자세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技術의 専門知識을 습득하기 보다는 일하는 基本的인 姿勢 및 方法에 대해 지도를 요청하여 전문가들로부터 강력한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問題點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改善項目까지도 指摘하면서 대안을 助言 또는 서류상으로 많은 것을 提示해 주었지만, 그러한 것들은 실적 구축을 위한 지도만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東炫의 실정은 당신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하여 좀더 좋은 改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언받았습니다.

저희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各 分野別로 팀을 構成하여 經營合理化를 위한 여러가지 事業들을 현재 推進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조언해준 여러가지 指導는 지금에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通譯이 한사람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많은 對話를 할 수 없었고, 지도 받을 會社와 같은 同種分野의 專門家가 왔었으면 좀더 效果的인 지도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회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自動車用 FILTER 分野에서는 世界 超一流 企業이 될 것이라는 確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品質 좋고 값싼 製品을 供給하여, 消費者가 보다 좋은 製品을 부담없이 많이 使用할 수 있도록 저희 회사는 最善을 다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國際社會에 이바지할 수 있는 企業으로 成長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韓日 兩國參席者 여러분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또한 韓日 兩國 産業技術協力財團에서 推進하는 事業들이 오래토록 계속되어 韓國과 日本의 友好增進에 좋은 가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자리를 빌어서 우리 會社를 위해 한국에 오셔서 많은 수고를 하셨던 엔도씨, 니시가와씨, 텐도씨 그리고 韓·日 兩國 産業技術協力財團 關係者 여러분께 다시 한번 感謝를 드리며, 通譯을 하기 위해 먼거리를 출,퇴근하시며 수고하셨던 이경완 선생님에게도 感謝드립니다.

感謝합니다.

第26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

THE 26TH JOINT CONFERENCE OF KOREA-JAPAN & JAPAN-KOREA ECONOMIC COMMITTEES

1994. 4.14~16 FUKUOKA JAPAN

< 合同分科會 >

「九州・山口 地域과 韓國間의 交流에 대해서」

(社)九州・山口經濟連合會

副會長 野崎 元治

(社)九州・山口經濟連合會(九經連) 副會長 野崎라고 합니다.

저는九州・山口・沖繩 地域과 韓國間의 交流現狀과 앞으로의 課題에 대해서 報告드리고자 합니다.

(1) 아시아 속에서九州・山口

九州・山口 地域은 面積, 人口, 生産 등이 全國의 거의 10%에 상당하고 있으므로 1割經濟라고 불리며, 그 規模는 1個國 네덜란드와 匹敵하고 있습니다. 이九州・山口에서도 近年, 國際化가 進行되는 속에서 地域造成을 推進하고자 하는 機運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九州・山口 地域에서는 世界의 成長센터로서 注目받고 있는 아시아 NIES와 아세안을 비롯하여,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는 아시아地域間과 結緣을 더욱 強化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九州・山口 地域의 輸出, 輸入의 약 40%를 아시아地域이 차지하고 있으며,九州・山口 企業의 海外進出件數도 約 6割은 아시아諸國으로 進出하고 있습니다. 또한 近年, 國際定期航空路線이 拡充되어, 아시아 대부분의 主要都市와 直結하고 있기 때문에

九州地域으로 들어오는 外国人入国者数は 近年 急増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아시아諸国으로부터 입니다.

이와 같이 九州・山口 地域은 그야말로 아시아와 共生을 図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冷戰終結이라는 國際的인 政治・經濟의 틀이 크게 變化하는 가운데, 經濟의 BORDERLESS化가 더욱 進展하고 있으며, 華南經濟圈, 바츠經濟圈, 成長의 トライ앵글, 그리고 環黃海經濟圈 등의 經濟圈 形成을 중심으로 아시아地域의 成長・發展은 더욱 加速할 것은 確實하며, 九州・山口 地域은 아시아의 一翼으로서 이러한 地域間의 交流를 더욱 깊이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大韓民國(韓國)은 그 歴史的 關係나 地理的 位置로 보더라도, 九州・山口 地域으로서는 가장 重視해야만 할 나라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九州・山口 地域과 韓國間의 交流現狀에 대해서 조금 살펴 보도록 합시다.

(2) 對韓國貿易의 拠点

우선, 貿易動向을 보면, 九州・山口 地域은 對韓國貿易의 基地라고 할 수 있습니다.

九州・山口 地域의 1992年の 對韓國貿易總額은 約 6,000億圓으로, 全体の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第2位인 中國의 約 2,035億圓을 大幅 上回하고 있어, 九州・山口로서는 最大の 貿易相對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特히, 輸入額의 全國 割合는 25.8%이며 日本의 對韓國貿易의 4分の 1이 九州 地域에 集中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全國적으로 보면, 日本은 輸出이 輸入을 上回하고 있는데, 九州 地域에서는 거꾸로 輸入이 輸出을 大幅 上回하고 있어, 輸入超過인 現狀입니다. 品目은, 輸出에서는 電氣機械, 一般機械, 有機化合物, 鉄鋼 등이 中心이며, 輸入은 衣類, 魚貝類, 機械類, 果実・野菜 등입니다.

또한, 1980年代 後半 以後, 九州 地域에서도 海外進出이 活発해지고 있습니다만, 1993年까지의 海外進出件數는 約 600件으로, 아시아地域으로 進出이 全体の 約 5割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韓國으로는 約

40件 정도입니다.

(3) 人的 交流

다음으로 人的 交流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日本人의 出国者數를 보면, 1992年은 約 75.7万名인데, 그 중 24.0%인 약 18.2万名, 즉 거의 4명에 한명이 한국으로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外国人 入国者數를 보면, 1992年은 約 29万名인데, 그 半數인 14.5万名이 韓國으로부터 入国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986年度와 比較해 볼 때, 約 7倍나 增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9年에 福岡市에서 아시아·太平洋 博覽會가 開催된 것과 1990年에 韓國에서 海外渡航制限이 撤廢된 것도 契機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自治體를 中心으로 한 姉妹都市交流도 活発합니다. 現在, 九州·山口 地域에서는 많은 自治體가 海外 132個 都市와 姉妹友好都市關係를 맺어 交流에 힘쓰고 있는데, 그 중 51件, 約 38%가 아시아의 諸都市이며 美國의 35件, 中國의 26件에 이어서 韓國의 19個 都市 등과 姉妹都市交流를 하고 있습니다.

(4) 國際航路의 充實

다음에 國際航空路線과 國際航路도 充實해 왔습니다.

九州·山口 地域에는 國際便이 發着하는 空港이 6개 있으며, 모두 합쳐서 約 32便의 國際定期航空路線이 就航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부분의 主要都市와 連結되어 있으며, 國際交流의 窓口로서 重要な 役割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韓國의 서울, 釜山, 濟州道 사이의 各 空港과도 定期便이 就航하고 있으며 모두 합쳐서 週 約 60便이 運航되고 있습니다.

한편, 國際航路에 있어서도 下関와 釜山을 연결하는 関釜輪리와 더불어 1990년에는 博多~釜山間에 定期輪리, 다음 해 1991년부터는 JR 九州와 韓國國鐵의 提携로 제트포일이 各各 就航하고 있습니다.

(5) 文化交流에 대해서

이와 같이 人的 交流가 活発해짐과 더불어 文化面에서도 다양한 交流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百濟의 마을 만들기」와 「名護屋城 博物館」)

예를 들어 宮崎縣南郷村에서는 「百濟의 마을 만들기」가 推進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7世紀에 滅亡한 古代国家 「百濟」로부터 日本으로 亡命한 王族이 이 地域에 옮겨 살았다는 伝說이 남아 있어, 이 歴史的 背景에 立脚하여 1988年度부터 展開되어 오고 있는 事業입니다. 韓國의 夫餘市에 있는 國立博物館을 모델로 한 物産展示館 「百濟의 館」을 비롯해 「百濟博物館」이나 「百花亭」을 본뜬 鐘樓등이 建設되고 있습니다.

또한 佐賀縣鎮西町에는 「名護屋城 博物館」이 建設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豊臣秀吉이 朝鮮半島를 侵攻했다는 歴史를 反省하는 立場에서, 그 歴史를 再評價하기 위해 日本과 朝鮮半島의 交流史에 대해서 展示・研究를 하기 위한 施設로서 整備된 것입니다. 돌담 修復이나 博物館 建設에는 韓國側의 支援과 協力を 얻어 推進중이라고 합니다.

(九州国立博物館構想)

文化交流에 關連해서 現在, 九州에서는 九州国立博物館을 設置하고자 하는 構想이 있습니다.

九州・山口 地域은 옛부터 朝鮮半島나 中國大陸의 文化를 받아들인 窓口로서 重要な 役割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文明交流에 關連된 貴重な 文化遺産이 九州 各地에 많이 남아 있고, 지금도 國際的인 相互理解와 交流를 促進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文化遺産이 重要な 役割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시아 文明의 發展과 交流의 歴史를 明確하게 함과 同時에 아시아의 學術・文化의 交流拠点으로서 博物館을 設置하고자 하는 構想으로, 世界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유니크한 것입니다.

(九州北部学術研究都市 「아시아스 九州」 構想)

九州北部 地域은 두개의 百万都市를 비롯해 高次的 都市機能을 갖춘 都市群, 充實한 学術研究機關, 多様な 産業과 技術의 巢積되어 있고, 日本에서도 研究 開發이나 学術文化 그리고 國際交流의 남쪽 거점으로서 發展할 수 있는 充分한 条件을 具備한 地域입니다.

그래서, 「環境・人間・아시아」를 基本概念으로 하여, 学術研究機能의 네트 워크化를 도모하고, 九州를 中心으로 하는 西南經濟圈, 그리고 널리 아시아와 關係를 깊이하면서, 文化学術의 一大拠点을 形成하자는 것이 九州北部学術研究都市 「아시아스 九州」 構想입니다.

이 構想은, 優秀한 人材와 頭腦의 定住를 꾀하여, 産業의 高度化와 地域文化의 創造를 促進하자는 地域造成이기도 하며, 将来, 이 構想이 具体化하게 되면, 아시아로 열린 文化・学術研究의 交流拠点으로서, 日韓間의 文化・学術交流에도 重要な 役割을 할 것으로 期待하고 있습니다.

(6) 地方自治체를 中心으로 한 交流

그리고 縣市등의 行政레벨의 交流도 최근 活發해지고 있습니다.

(日韓海峽沿岸 縣市道知事 交流會議)

1992년에는 日韓海峽沿岸 縣市道知事 交流會議가 開催되었습니다. 日韓海峽을 사이에 둔 釜山直轄市, 全羅南道, 慶尚南道, 濟州道 및 福岡, 佐賀, 長崎 各 縣의 7개의 縣市道の 代表가 一堂에 모여, 地方自治체間의 相互交流에 關해서 서로 논의하였습니다. 작년 6월에 開催된 第2回 會議에서는 ①靑少年交流事業, ②環境技術協力會議, ③水産關係交流會議의 3個事業을 共同事業으로 推進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아시아 環黃海都市會議)

또한, 友好都市關係에 있는 韓國의 釜山直轄市, 仁川直轄市, 中國의 大連市, 青島市와 北九州市, 下関市の 3個国 6都市를 中心으로 동아시아 環黃海都市會議가 開催되었습니다. 各 都市의 研究者, 行政關係者, 經濟人이 一堂에 모

여, 活潑한 意見交換과 討議를 하고 있습니다. 1991年 以來 開催되고 있습니다만, 작년 11月의 會議에서는 共同聲名이 나오고 ①産業技術이나 環境技術의 交流, 見本市 開催 등의 經濟交流, ②文化・스포츠 交流과 職員의 相互派遣 등의 行政交流, ③情報交換등 研究機關의 交流를 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連絡機關을 設置하는데 合意를 보았습니다.

(九州・韓國經濟交流會議)

더욱이 각 나라의 地方機關을 中心으로 하는 交流도 推進되고 있습니다.

1992年에 北九州市에서 「코리아 웨스타 92」가 開催되었는데 그 成果를 살려서, 日韓間의 새로운 地域間 協力體制를 構築하기 위해, 韓國商工資源部와 九州通産局을 中心으로 「九州・韓國經濟交流會議」가 設置되었습니다. 1993年 11月, 第1回會議가 開催되어, 兩國의 中小企業間의 産業協力과 技術研修, 韓國製品의 對九州 輸出擴大, 見本市場 開催등에 대해서 活潑한 意見交換이 이루어져, ①中小・中堅企業의 産業協力促進團의 相互派遣, ②促進미션의 相互派遣과 見本市場의 開催, ③(財)北九州國際技術協力協會(KITTA)에서 技術研修의 實施, 技術者의 韓國派遣등을 實施할 것으로 合意・調印하고 있습니다.

(7) 日韓交流를 促進하기 위한 開發課題－九州國際空港의 實現

(九州國際空港 프로젝트)

그러면, 九州・山口 地域이 日本의 남쪽 交流拠点으로서 아시아를 中心으로 國際交流를 더욱 推進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拠점이 되는 國際空港의 整備가 不可欠합니다.

따라서, 九經連에서는 1989年에 開催한 九州地方知事會와 九經連과 意見交換會에서 본 合意로, 九州에 國際HUB空港을 設置하자는 「九州國際空港 프로젝트」를 推進하고 있는 중입니다.

1992年에 作成된 「九州國際空港必要性等調査」에서는 九州 地域에 國際HUB空港이 必要하다는 것이 明示되었고, 이를 받아들여 1993年에 「立地可能性概略調査」를 實施하여 福岡市北部海城, 有明海海城, 大村灣海城

의 3地域 6地区의 候補地가 選定되었습니다. 現在, 福岡・佐賀・長崎・熊本의 關係 各県에서 각각 調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候補地를 더욱 추려서, 日本의 空港整備 5個年計劃에 採択 되도록 推進해 나가고 있습니다.

日本에서는 今年 9月, 関西國際空港이 開港하고, 韓國・仁川에서는 이미 大型 國際空港이 建設中에 있으며, 또한 홍콩이나 上海에서도 巨大한 國際空港이 建設中 혹은 構想을 내세워, 國際 HUB하프空港도 지금은 國際競爭時代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世紀가 아시아의 時代라고 展望한다면, 九州 地域이 앞으로, 韓國을 비롯한 아시아諸國과의 交流를 더욱 깊이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九州國際空港의 實現은 重要な 課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 環黃海經濟圈의 形成을 向하여

今後, 九州・山口 地域과 韓國間의 交流를 생각할 때, 環黃海經濟圈의 形成이라는 課題가 있습니다. 九州・山口와 韓國間의 地理的인 位置와 歷史的인 經緯에 立脚한다면, 經濟, 文化, 學術 등 폭 넓은 交流, 經濟協力の 可能性은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環黃海經濟圈의 範圍를, 만약 中国沿岸地域, 韓國, 九州・山口 地域이라고 할 경우, 이러한 地域 全体의 人口規模는 約 2億 6,000万名, GNP는 約 6,300億 달러 程度로 推定되며, 이것은 華南經濟圈이나 成長의 트라이앵글 등의 經濟圈의 規模를 크게 上回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韓國經濟는 앞으로도 높은 成長이 기대되며, 中国沿岸地域에서는 外国投資가 活発하여 經濟發展이 顯著的한 것 또는 韓中国交回復을 契機로 韓中貿易이 擴大하고 있는 것 등을 생각해 볼 때, 이미 環黃海經濟圈의 形成을 향한 움직임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九州・山口 地域에는 素材産業이나 日本을 代表하는 IC, 自動車 등의 知識集約型 産業, 소프트 産業 등의 多彩로운 産業이 集積되어 있으며, 航空宇宙産業 등 未來産業으로의 展望도 있습니다. 또한, 現在, 日本에서는 테크노 슈퍼 라이너(TSL)의 開發이 推進되고 있는데, 將來, 이것이 實用化되

어 環黃海地域에 導入되면, 國際貨物輸送에 커다란 威力을 發揮할 것으로 期待됩니다.

이러한 展望에서 九州・山口 地域이 環黃海經濟圈의 形成에 重要な 役割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環黃海經濟圈構想의 重要な 열쇠를 쥐고 있는 技術交流나 技術移轉에 대해서는 (財)北九州國際技術協力協會(K I T A)의 活動이 높이 評價됩니다. K I T A는 北九州市와 그 産業群이 일찌기 公害를 克服한 經驗에서 蓄積된 高度의 工業技術이나 環境技術을 海外로 移轉할 것을 目的으로 1980 年에 設立한 것이며, 지금까지 70余個國으로부터 約 1,000名의 技術研修員을 받아들여, 技術研修를 實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環黃海經濟圈에서 技術交流를 推進하는 가운데도 重要的 役割을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環黃海經濟圈構想을 推進하기 위한 여러가지 課題 등에 대해서는 (財)國際동아시아研究센터나 (財)九州地域産業活性化센터 등의 調査機關을 中心으로 專門인 調査研究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中國이나 韓國에서의 現地調査를 包含한 詳細한 調査를 實施하고 있고, 産業面, 技術面과 人的 交流를 促進하기 위해서 多彩로운 프로젝트를 提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具體化하기 위해서는 더욱 論議와 調査를 거듭함과 同時에 國際間的 폭 넓은 協力關係가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9) 앞으로 日韓交流 擴大를 위하여

지금까지 九州・山口 地域과 韓國間的 交流를 中心으로 現狀과 課題 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從來는, 主로 東京를 中心으로 國際交流가 展開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80年代 以後, 特히, 顯著해진 地方國際化를 앞으로도 推進해 나가기 위해서는 地域独自の 交流를 推進할 것과, 그리고 地域과 地域의 交流를 活潑히 할 것이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日本에서는 地方分權을 실시하는 것이 國政의 重要的 課題로 되어

있으므로, 地方圈의 活性化는 더욱 發展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意味에서, 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가 이곳 福岡에서 開催된 것은 매우 重要な 意味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日韓經濟人會議를 契機로 九州・山口 地域과 韓國間의 交流가 더욱 敦篤해지기를 진심으로 祈願하면서 저의 發言을 마칩니다.

全国・九州의 貿易動向（아시아主要国間の 貿易総額）

（単位：百万円，％）

	全 国				九 州 ・ 山 口			
	1986年	1992年	増加率	構成比 (1992)	1986年	1992年	増加率	構成比 (1992)
韓 国	2,646,870	3,719,176	140.5	5.1	413,084	599,462	145.1	14.2
（輸出）	1,760,685	2,253,298	128.0	5.2	193,615	221,755	114.5	10.6
（輸入）	886,185	1,465,878	165.4	5.0	219,469	377,707	172.1	17.7
中 国	2,632,350	3,655,097	138.9	5.0	210,548	203,514	96.7	4.5
인도네시아	1,716,355	2,255,733	131.4	3.1	171,585	178,521	104.0	4.2
台 湾	2,099,376	3,878,437	184.7	5.3	84,639	159,043	187.9	3.8
말레이시아	949,909	1,860,510	195.9	2.6	57,344	124,417	217.0	3.0
타 이	575,942	2,065,279	358.6	2.8	48,376	119,918	247.9	2.8
홍 콩	1,385,488	2,884,751	208.2	4.0	51,013	100,968	197.9	2.4
싱가포르	1,019,165	2,033,282	199.5	2.8	32,185	70,866	220.2	1.7
필 리 핀	392,105	741,217	189.0	1.0	31,297	54,538	174.3	1.3
9 個 国 計	13,417,560	23,093,482	172.1	31.8	1,100,071	1,611,247	146.6	38.2
全 世 界	56,840,431	72,539,700	127.1	100.0	3,277,143	4,214,975	128.6	100.0

（注）1．九州・山口의 貿易総額の 順。

2．韓國의 輸出 및 輸入의 構成比는 각각 総額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資料）大蔵省関税局，門司税関・長崎税関

全国・九州의 日本人出国者数의 推移

(單位：人，%)

	全 国				九 州			
	1986年	1992年	增加率	構成比 (1992)	1986年	1992年	增加率	構成比 (1992)
韓 国	591,780	1,314,540	222.1	11.1	96,163	182,055	189.3	24.0
홍 콩	361,293	936,650	259.2	7.9	26,894	63,479	236.0	8.4
中 国	334,301	579,763	173.4	4.9	27,697	50,381	181.9	6.7
台 灣	686,370	730,384	106.4	6.2	58,794	47,716	81.2	6.3
싱가포르	240,562	655,485	272.5	5.6	16,877	39,325	233.0	5.2
인도네시아	101,601	250,615	247.4	2.1	3,960	18,318	462.6	2.4
타 이	128,099	384,543	300.2	3.3	7,863	17,071	217.1	2.3
말레이시아	39,345	137,497	349.5	1.2	1,552	12,299	792.5	1.6
필 리 핀	127,601	205,830	161.3	1.7	5,216	7,297	139.9	1.0
아시아 計	2,702,568	5,195,307	198.1	45.4	248,576	444,324	178.7	58.7
全 世 界	5,516,193	11,790,699	213.7	100.0	377,210	757,053	200.7	100.0

(資料) 法務省「出入国管理統計年報」

全国・九州의 外国人入国者数の 推移 (아시아 主要国)

(単位：人，%)

	全 国				九 州			
	1986年	1992年	増加率	構成比 (1992)	1986年	1992年	増加率	構成比 (1992)
韓 国	299,602	1,094,724	365.4	27.9	23,749	145,224	611.5	50.2
台 湾	300,272	745,835	248.4	19.0	43,586	73,538	168.7	25.4
中 国	75,275	187,681	249.3	4.8	2,220	13,278	598.1	4.6
필 리 핀	80,508	120,660	149.9	3.1	3,251	11,367	349.6	3.9
홍 콩	32,271	39,460	122.3	1.0	1,990	3,356	168.6	1.2
타 이	30,296	97,568	322.2	2.5	246	2,750	1,117.9	1.0
인도네시아	31,649	33,374	105.5	0.9	333	1,096	329.1	0.4
싱가포르	33,943	41,490	122.2	1.1	—	—	—	—
말레이시아	45,589	61,655	135.2	1.6	—	—	—	—
아시아 計	1,014,787	2,519,046	248.2	64.2	77,722	256,291	329.8	88.6
全 世 界	2,021,450	3,926,347	194.2	100.0	96,343	289,254	300.2	100.0

(注) 九州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데이터가 없음.

(資料) 法務省「出入管理統計年報」

九州・山口企業の 海外進出件数

(単位：件)

	～ 1970	1971～ 1980	1981～ 1985	1986～ 1990	1991	1992	1993	合 計
아시아 計	13	56	52	145	44	41	30	381
아시아 NIES 計	10	34	27	55	19	14	7	166
韓 国	1	15	5	13	4	1	1	40
台 湾	6	6	9	14	3	5		43
홍 콩		5	8	19	7	5	3	47
싱가포르	3	8	5	9	5	3	3	36
A S E A N	3	19	12	39	8	4	3	88
中 国		1	11	50	14	20	18	114
그외 아시아		2	2	1	3	3	2	13
美 国	1	13	10	62	17	15	3	121
유 럽		6	8	18	13	2	5	52
그 외	2	10	10	7	4	1		34
世 界 計	16	85	80	232	78	59	38	588

(注) 1. 1993년은 8月까지의 件数임.

(資料) (財)九州經濟調查協會 『아시아의 時代와 地域經濟 (1988年度 九州經濟白書)』 (1989年 2月) 및 同『九州・山口地場企業の 海外進出 (1986～93)』 (1993年 3月)에서 作成.

第26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

THE 26TH JOINT CONFERENCE OF KOREA-JAPAN & JAPAN-KOREA ECONOMIC COMMITTEES

1994. 4.14~16 FUKUOKA JAPAN

<合同分科會>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生産性向上 技術協力에 대하여」

(財) 社会經濟生産性本部 海外技術協力部
專任課長 遠 藤 武 男

저희 生産性本部는 작년 8월부터 12월에 걸쳐서 日韓産業技術協力財團의 요청과 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의 협력을 얻어 韓國生産性向上技術協力project를 실시했습니다. 이 project는 한국의 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1개 회사 당 1회 3주간, 計 18주 동안 실시했습니다. 저는 project manager로서 참가했습니다만, 체계는 첫 경험으로서 문화, 풍속, 습관 차이, 언어와 食생활 등의 면에서 당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전문가들은 관계자들의 의욕과 각 기업 여러분들의 스스로 개선, 개혁하겠다는 열의에 이끌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좋았고 저희들이 배우는 바도 많았던 보람된 일이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project를 시행하기에 앞서 經營 consultant와 함께 사전에 각 企業을 돌며 공장 시찰을 하고 기업의 경영자 및 간부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업 측이 이번 project에 특히 기대, 요망했던 사항은,

- (1) 제품 품질의 안정화와 향상
- (2) 각종 작업에 合理化 技術 도입
- (3) line 자동화 추진
- (4) 종업원 정착화 방안

등이었습니니다.

저희들은 각사의 요망에 맞게 전문가를 선정하고 제반 조건을 고려함에 있어서 生産性 3원칙을 여하히 한국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출 것인가를 중시했습니다.

生産性 3原則이란,

- (1) 生産性 向上은 궁극적으로 고용을 증대시킨다.
- (2) 生産性 向上의 구체화 방식은 각 기업의 실정에 맞추어 勞使가 납득한 상태에서 추진한다.
- (3) 生産性 向上의 본질은 기업의 이상을 향하여 데이터를 중심으로 「누가 옳은가가 아닌 무엇이 옳은가」를 추구하는 것이며, 그 성과는 경영자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환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에 임하는 자세로서는

- (1) 専門家は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며, 개선 방안에 관한 조언은 하지만, 그것을 실시함에 있어서의 의사 결정과 실제 개선 활동은 회사측이 담당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위해 人材 養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지시킨다.
 - (2) 항상 상대방과 눈높이를 같이하여,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改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협력한다.
 - (3) 大規模 投資나 과도한 변경을 수반하는 改革이 아니라 우선 現 實정을 파악하고 각자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현재 상태에서 최대의 生産性을 올린다.
 - (4) 전원이 참가하여 안전하고 청결하며, 정확 신속하며 저렴하고 간편하게, 인간성을 존중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든다.
 - (5) 경비가 들지 않고, 즉각 실시 가능한 효과적인 사항부터 실행한다.
 - (6) 専門家인 우리들이 귀국한 후에도 회사 측이 금번 project에서 습득한 것을 살려 계속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 이상의 점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인 실제 진단과 技術 協力에 앞서 우리들은 재차 경영자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뷰를 실시하고, 동시에 전 사원에 대한 意識조사 앙케트와 5S 앙케트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개 회사에서 수 백개의 항목에 이르는 솔직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먼저 생산면에 대한 경영자와 간부들의 요망은

- (1) 品質向上을 위한 機械化와 自動化 및 각종 첨단 기술의 이전.
- (2) 3定, 5S의 도입에 의한 職場의 活性化.
- (3) 中間管理職 육성에 의한 팀워크와 리더십의 강화.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換言하면, 경영자나 간부들은 문제점도 알고 있고 지식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실천하면 좋을 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알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또 모럴面에 있어서는

- (1) 종업원의 敎育 레벨이 낮아서 지시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
- (2) 종업원은 임금이 낮으므로 임금이 높은 곳이 있으면 곧 옮겨 버린다.
- (3) 종업원에게 品質向上意識이나 原價低減의식이 희박하여 시키는 일 이외는 하지 않는다.
- (4) 종업원은 3定이나 5S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3定: 一定한 물건을 一定한 量만큼 一定한 곳에

*5S: 整理, 整頓, 清掃, 清潔, 習慣化

등이었습니다.

한편 종업원들이 간부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점은

- (1) 우리 회사 간부들은 policy가 없다.
- (2) 간부 상호간의 communication이 원활치 않아 현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 (3) 적절한 報告·連絡·相談·指導·敎育이 거의 없다.
- (4) 팀워크가 나쁘고 리더십이 부족하다.
- (5) 管理職은 젊은 大卒者가 많고 實務知識이 빈약하다. 관심이 위로만 향해 있고 현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등이었습니다.

종업원들의 意識 앙케트 결과를 요약하면,

- (1) 人間으로서 인정해 주기 바란다 (機械와는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 (2) 자신의 일에 책임과 긍지를 갖고 싶다.
- (3) 우리들의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해 주기 바란다.
- (4) 우리들의 이야기와 희망을 잘 들어 주기 바란다 (일, 직장에 대한 개선안,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 (5) 가능하면 현재의 회사나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싶다.
- (6) 현재의 회사 실정으로 보아, 즉각적인 給料 引上은 어렵다고 생각하므로 전원이 협력하고 노력하여 성과가 오르면 이에 걸맞은 처우를 해 주기 바란다.

라는 적극적인 의견이 많았고, 경영자 및 간부들과 일반 종업원들 간에는 큰意識差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종업원들이 경영자나 간부들이 종업원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보다 자신들의 일에 대하여 진지하며 「임금보다도 안전하고 청결하며 밝고 즐거운 활기가 넘치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자기 자신을 向上시키고 싶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데, 이러한 점을 경영자나 간부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경영자와 간부들의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모처럼의 project도 無用之物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의 意識改革을 목표로 12시간에 걸친 意識改革教育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나쁜 일을 하는 것도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이 교육의 요지는 「人材 養成이 중요하며 우선 자신을 계발하는 것이 남을 계발하는 길이다. 남을 위하여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길이 된다. 또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일은 남을 위하는 일도 된다」 「훌륭한 企業人이기 이전에 먼저 훌륭한 社會人이 되라」는 것입니다.

간부 全員이 같은 이념 아래,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의도했습니다.

처음 2주간의 활동 후, 우리들은 會社측에 각종 개선 목표를 과제로 남겼습니

다. 그리고 다음에 방문했을 때 會社의 안팎을 살펴보니 몰라 볼 정도로 정리 정돈과 청결·청소가 되어 있고, 전 사원이 힘차고 명랑하게 기분 좋게 인사를 주고 받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다시금 경영자와 간부들에게 현상 확인을 위한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모두들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활기차고 열심히 제시했던 과제 of 실시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는 남이 해 주기만 바랐고, 또 큰 문제나 改革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project 결과, 우선 주위의 작은 개선, '경비가 들지 않고 금방 할 수 있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 부터 착수하게 되었다. 결국 작은 개선의 축적이 큰 改革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더우기 「상부로부터의 일방적인 機械化나 自動化는 maintenace요원의 육성과 社員 教育이 뒤따르지 않으면 不良品만 양산할 뿐이라는 것도 알았다.」라고 하여, 우리들이 놀랄 정도로 思考가 발전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마지막 1주일 동안 韓國의 中小企業에서 특히 실시가 늦어지고 있는 「눈으로 보는 管理」의 실천에 주력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管理」란 작업의 대상이나 순서, 결과, 효과 등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圖表나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하여 누구에게나 이해하기 쉽도록 한 管理方法의 한 가지입니다.

그 綜合事例로서 직원들의 原價意識 向上對策 및 品質意識 向上對策을 위하여 활동의 총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직원 전원 참여 형식의 不良品 줄이기 大作戰과 안전하고 청결한 직장 만들기를 목표로 하여 사진에 의한 5S·빨간 딱지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이 두 가지 작전을 통하여 전 社員의 活性化와 함께 큰 성과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몇몇 企業에서는 이 작전 수행 후 며칠만에 不良品이 半減되고 5S 意識도 높아졌습니다. 이 두 가지 작전의 구체적인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會社에서 실제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성과를 포함한 生産性向上技術을 한국의 중소기업에 확산시키

기 위하여 몇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이 중심이 되어 生産性向上協力を 실시한 한국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유효하리라고 믿습니다.

26년간, 企業敎育에 종사해 온 저는 「85%의 意識과 15%의 專門知識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 아닌지가 아니라, 할지 안 할지가 우선 第一步입니다. 어려우니까 불가능하다고 단념하면 더욱 사태를 惡化시킵니다. 어려운 일로부터 도피해 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괴로울 뿐입니다. 차라리 어려운 일에 착수하여 그것을 극복하면 편해집니다. 이러한 생각을 여러 企業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이번 project를 되돌아보면서 다음 사항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 受容 측과 파견 측, 쌍방의 열의와 진지함에 이끌렸다.
- * 1-2년 후에 금번에 관계한 企業을 꼭 재방문하고 싶다.

이번 경험은 우리 project 멤버 전원이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관계자들과 자신의 뜨거운 정열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평생의 일로 삼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열의를 가지고 이 事業에 임하고자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이해를 얻어 보다 나은 일을 해 내므로써 微力 하나마 韓國과 日本 양국을 잇는 하나의 가교가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

第26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

THE 26TH JOINT CONFERENCE OF KOREA-JAPAN & JAPAN-KOREA ECONOMIC COMMITTEES

1994. 4.14~16 FUKUOKA JAPAN

<合同分科会>

「環境問題 TASK FORCE 결과보고」

東京電力(株) 特別顧問

永野 芳 宣

1. 머리말

東京電力의 永野(나가노)입니다. 오늘은 양국의 경제계의 리더 여러분이 나와계시는 이 자리에서 저희 「環境問題 TASK FORCE」의 조사결과보고의 기회를 얻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산업의 발전과 환경문제의 해결과는 별도로 생각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동시에 그것이 地球規模의 중요성을 갖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日・韓 兩經濟協會에 있어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실로 시기 적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적인 제약도 있어, 저희 활동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활동(조사연구)의 경위

저희 TASK FORCE는, 1991년의 産業一般委員會에서의 합의에 따라서 조직된 것이며, 1992년 9월에 제1회 합동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TASK FORCE의 멤버는, 쌍방 15명씩 정도로, 日韓・韓日 兩經濟協會의 會員 會社 및 단체의 실무가・전문가 여러분이며, 主査는 한국측이 金都亨・産業研究 院 日本研究센터 所長님, 일본측은 저희 永野가 맡게 되었습니다.

작년 9 월까지 4 번의 합동회의를 東京 및 서울에서 개최했고, 일본과 한국의 환경문제의 역사, 현상과 대응, 장래적인 과제 등에 대하여 忌憚없는 의견 교환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실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兩都市의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見學會를 실시하였습니다.

쌍방에서 조사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만, 양국 사이에는 자료의 정리방법이나 環境基準値, 実績値 등 통계를 잡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兩者를 단순히 비교해서 논의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大氣, 水質 및 산업폐기물 등 3 가지 분야의 실태에 대해서는 조사연구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연구결과를 일한공동으로 보고서로 정리하여, 작년 11월에 TASK FORCE의 상부기관인 산업일반위원회에 제출했고, 승인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日韓・韓日環境問題의 現狀과 産業界의 対応」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양국 회원기업 및 관계단체 등에 配付해드린 바가 있으므로, 여러분 중에서 고람해준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3. 보고서의 내용

그럼 TASK FORCE에서 정리를 하고 산업일반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은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립니다.

첫째 포인트는, 양국 모두 官民이 일치협력해서 환경대책을 실시하여 이제는 환경문제의 해결없이 경제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한양국이 35년 내지 40년간에 걸쳐서 쌓아 올린 실적을 바탕으로 훌륭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즉, 양국 모두 하천의 수질오염이나 폐기물오염 등의 공해문제 해결, 煤煙을 포함한 대기오염대책 등과 나아가서 소음이나 진동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한 자료 「環境保全의 歴史・日韓比較」

에 정리를 하였으므로 참고로 하여 주시면 다행입니다.

두번째 포인트는, 조사연구과정에서 일한 쌍방이 인식하게 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만, 한국은 일본보다 경제발전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경대책을 충분히 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반적인 노력은 물론 수행되었지만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환경대응의 수준에 있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각이 있으며, 단순히 計量化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울과 東京의 煤煙이나 二酸化硫黃(SO₂)의 환경기준 설정의 실정을 보면 약 3 배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첨부한 자료 「日韓環境基準値の比較」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번째 포인트는, 앞으로 일한의 민간차원에서 협력 가능한 사항을 실시해 나갈 것을 提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 ① 한국에서의 환경기술 연수생을 일본이 수용해서, 강의와 공장견학을 중심으로 한 연수를 실시할 것
- ② 일본에서 강사·전문가를 파견해서 한국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것
- ③ 일반적인 정보교환 및 관계기관의 알선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협력사항은 일·한양국의 産業技術協力財團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우선 本年度부터 기술연수생의 수용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4. 맺는 말

이상, 저희 TASK FORCE의 조사결과는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환경문제의 실태를 조사해서 오늘 이렇게 경제계의 정상급 여러분 앞에서 피력하게 된 것은, 앞으로 양국의 발전과 협조를 추진해나감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TASK FORCE의 멤버 여러분 및 산업일반위원회의 멤버 여

러분, 특히 한국측 산업일반위원회의 趙錫來위원장님과 TASK FORCE의 金都亨
주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주요한 일		주요한 일	
年次	日本	日本	韓国
1955		三連縣四日市에서 異臭魚 출현	
1958	工場排水規制法「水質保全法」公布		
1959		熊本大学研究班이 水俣病의 원인이 有機水銀임을 발표	
1960		池田内閣, 高度経済成長政策을 내세움	
1961		四日市에서 煤煙暴風 다발	
1962	「煤煙規制法」公布	東京에서 스모그가 연속적으로 発生하여 問題化, 석유공급량이 制限을 상회	
1963	정부의 「公害特別調査団」이 四日市를 調査	名神高速道路開通, 고속도로시대 개막	
1964		新潟県阿賀野川 유역에서 有機水銀中毒 환자 발생, 東京 올림픽 개최	
1967	「公害対策基本法」公布	自動車保有台數 1,000만대 도달	
1968	「大氣汚染防止法」(騒音規制法)公布	霞ヶ關비딩 완성, 초고층빌딩시대 개막	
1969	東京都公害防止条令 制定	政府가 최초의 「公害白書」를 발표	
1970	「一酸化炭素의 環境基準」閣議決定, 「水質汚濁에 관한 環境基準」閣議決定, 第6回臨時国会(公의 「公害国会」)가 開催되어, 14개 公害關係法이 可決成立	光化学 스모그의 피해가 처음으로 발생, 田子補灌 へ도로 (へどろ) 公稱 표면화	
1971	「騒音에 관한 環境基準」閣議決定, 「惡臭防止法」公布, 環境庁 榮登, 「水質汚濁에 관한 環境基準」公布	P C B에 의한 環境汚染 표면화	
1972	「浮遊粒子狀物質에 관한 環境基準」公布, 「自動車排出가스濃度 許容限度」一部改正, 「(비)배출 및 灰반출 (LPG)차」, 「自動車排出가스濃度 許容限度」一部改正 (유발유 (LPG)차)	제 1 회 國連人間環境會議 (스톡홀름)	
1973	「有害物質을 포함한 廢棄物에 관한 環境基準」상정, 「大氣汚染에 관한 環境基準」公布 (二酸化窒素, 二酸化炭素, 一酸化炭素, 浮遊粒子狀物質, 光化学 오카시안트), 「政府 「水銀等汚染對策推進會議」 설치, P C B의 許容基準 결정, 「瀬戸内海環境保全臨時措置法」公布, 「公害健康被害補償法」公布, 「有害物質의 審査 및 製造等の 規制에 관한 法律」公布	석유파동, 물가상등, 물자부족이 발생	保健社會部內에 「公害課」를 설치

年次	日 本	韓 國	주요한 일
	日 本	韓 國	日 本
	國立公害研究所 發足 「公共用水域」의 該當되는 水質汚濁에 關한 環境基準의 水質標準」指定 및 改正 「大氣汚染防止法」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公布 「水質汚濁에 關한 環境基準의 一部改正」- 一般水質, 아르스水質의 基準值 改訂		안개나 빗물에 의해 눈과 피부의 아픔을 호소하는 被害가 발생 特殊法人「公營健康被害補償協會」設立
1974			
	「水質汚濁에 關한 環境基準의 一部改正」(P.C.B. 水質) 정부, 産業廢棄物問題關係省庁會議을 設置 「大氣汚染防止法施行令」의 一部를 改正하는 政令(50x第2次指定地域指定) 「大氣汚染防止法施行規則」의 一部를 改正하는 總理府令(N0x固定發生源第2次排出基準強化)		東京에서 六價크롬 汚染에 의한 土壤汚染問題 發生
1975			
	「振動規制法」公布		自動車保有台數 3,000만대에 도달
1976			
		「環境保全法」公布「海洋汚染防止法」公布 製作自動車의 運行自動車의 排出가스 規制基準設定	
1977			
	「大氣의 汚染에 關한 環境基準의 一部改正」(NO ₂ 에 關한 環境基準의 改定)	水質環境基準設定・施行(水域別, 項目別, 等級別)	國立環境研究所 發足
1978			
		「合成樹脂廢棄物處理專業法」公布 亞硫酸가스環境基準設定	世界氣象機構(WMO) 第1回世界氣象會議開催
1979			
		環境庁發足	韓國資源再生公社 設立
1980			
	「大氣汚染防止法施行令」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令(N0x總量規制制度가 3地域에서 導入)	「環境保全法」改正, 鹽酸排出規制新設 硫酸含有物基準強化	低硫黃油供給開始
1981			
		「南海岸一帶沿岸汚染特別管理地域」指定	生活騒音規制開始
1982			
	「大氣汚染防止法施行規則」의 一部를 改正하는 總理府令(第5次NO ₂ 排出規制의 強化)	「環境管理公団法」公布 一體化事業, 二體化事業, 오피스건트, 煤煙, 炭化水素의 環境基準設定 排出總量金制度施行(大氣4種・水質12種)	MARPOL (船舶에 의한 海洋汚染防止國際條約)加入
1983			
	「水質汚濁防止法施行規則」의 一部를 改正하는 總理府令 및 「排水基準을 檢査하는 檢理府令」의 一部를 改正하는 檢理府令(廢棄, 燐의 排出基準을 檢査)附令」公布(廢棄, 燐의 排出基準을 檢査)	固体燃料使用規制	自動車保有台數 100万台 超過
1984			
		「廢棄物管理法」公布	玉川上水 맑은 물이 부활
1985			
	「大氣汚染防止法施行令」의 一部를 改正하는 政令(特別對象施設에 가스타인, 디젤기관을 裝着)	飛散煤煙發生源施設設置基準告示 排出總量金制度改正: 設置期間延長 揮發油(L.P.G 포함)乘用車排出가스基準米國水準으로 強化	UNEP, 「오존층을 破壞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條約」採択
1987			

年次	주요한立法·行政		주요한일	
	日本	韓 國	日本	韓 國
1988	「特定物質의 規制等에 의한 온층層保護에 관한 法律」公布	L P G使用義務化: 서울시내 모일러 2 (以上)의 빌딩	自動車保有台數 5,000万台 도달 第1回日韓環境심포지움 (서울)	서울올림픽 개최 國立環境研究院에 「湖沼水質研究所」新設 國立環境심포지움 (서울)
1989	「排水基準을 정하는 法律附屬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附屬」公布 (有害物質으로서 트리크로로에틸렌 및 테트라크로로에틸렌을 추가) 環境庁「(有害) 物質 또는 混合有物에 대한 排水基準에 관한 規程」을 정하는 法律附屬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附屬 (有害·微規程湖沼의 追加)		「有害廢棄物의 越境移動 및 그 處分의 管理에 관한 바젤條約」採擇 알류·서밋트 (經濟成長과 環境保護의 兩立)	
1990	環境庁「「글로벌에서 使用되는 農藥에 의한 水質汚染防止에 관한 暫定指導指針」」을 通知	「環境政策基本法」公布 「大氣環境保全法」公布 「水質環境保全法」公布 「醫藥·振興振興法」公布 「環境汚染救濟新章」公布 「有害化學物質管理法」公布	第2回日韓環境심포지움 (北九州市) 環境庁「環境問題에 관한 基本의 見解」發表 國立環境研究院에 「自動車公害研究所」新設 國立環境研究院에 環境教育을 담당하는 「訓練部」發足 自動車保有台數 300万台超過	環境庁「環境問題에 관한 基本의 見解」發表 國立環境研究院에 「自動車公害研究所」新設 國立環境研究院에 環境教育을 담당하는 「訓練部」發足 自動車保有台數 300万台超過
1991	通産大臣「關係各業界團體에 「廢棄物의 減量化·再資源化促進에 關한 協力要請」 內閣總理大臣「化學的廢棄物要求에 관한 廢棄物減基本方針을 策定 「土壤의 汚染에 關한 環境基準에 대해」公布 「再生資源의 利用促進에 關한 法律」公布 「廢棄物處理法改正法」公布	「自然環境保全法」公布 「環境改善費用負担法」公布 「海洋汚染防止法」全面改正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관한 特別措置法」公布 「環境犯罪의 処罰에 關한 特別措置法」公布 「環境基準設定 基本環境基準新設 排出基準強化 (제논 등 추가) 首都圈에 L N G燃料使用義務化対象地域을 指定 輕油自動車排氣가스規制基準強化 廢棄物分類處置要更	環境庁「環境問題에 관한 基本의 見解」發表 國立環境研究院에 「自動車公害研究所」新設 國立環境研究院에 環境教育을 담당하는 「訓練部」發足 自動車保有台數 300万台超過	濟南江 페논流出事件發生 國立環境研究院訓練部를 環境公務員教育院으로 擴大, 改編 市內버스와 座席버스의 엔진출력을 強化 U N E P의 後援아래 “北西太平洋地域 高度保全 프로그램(NOWPAP)” 1次實施會議參加 自動車保有台數 400万台超過
1992	「自動車에서 排出되는 窒素酸化物의 特定地域에 있어서의 總量의 削減等에 關한 特別措置法」(自動車NOx法)公布 「特定有害廢棄物等의 輸出入等의 規制에 關한 法律」公布	「資源節約과 再活用促進에 關한 法律」制定 「廢棄物의 國家間移動 및 그 處理에 關한 法律」制定 廢棄物預置金制度施行 環境마크 施行	地球環境賢人會議 (東京) 地球시밋트 (環境과 開發에 關한 國連會議) (리온) 「地球시밋트와 21世紀世界環境秩序의 展望」을 약한 '92 서울심포지움 第1回環日本海 (東海) 環境協力會議 (新潟)	地球環境賢人會議 (東京) 地球시밋트 (環境과 開發에 關한 國連會議) (리온) 「地球시밋트와 21世紀世界環境秩序의 展望」을 약한 '92 서울심포지움 第1回環日本海 (東海) 環境協力會議 (新潟)
1993	「地球環境基金」開設 「特定有害廢棄物等의 輸出入等의 規制에 關한 施行令」制定 「環境基本法案」衆議院通過	「環境影響評價法」施行 廢棄物預置金對象擴大 廢棄物處理自損金制度導入 輕油乘用自動車廢棄物規制方式(ppm)을 實施 規制方式(B/Km)에 輕換	自動車保有台數 500万台超過 生物多樣性協約과 氣候變化協約批准 호트리온會議加入 L N G燃料使用義務化地域 地方大都市市 擴大	自動車保有台數 500万台超過 生物多樣性協約과 氣候變化協約批准 호트리온會議加入 L N G燃料使用義務化地域 地方大都市市 擴大

日韓 環境基準値 (大氣) 의 比較
(「日韓・韓日環境問題의 現狀과 産業界의 対応」에서 抜粋)

항 목	일 본	한 국
二酸化硫黄 (SO ₂)	1時間値의 1日平均値가 0.04ppm 以下로, 동시에 1時間値가 0.1ppm以下일 것.	연간평균치가 0.05ppm以下로 동시에 24시간평균치가 0.15ppm以下일 것.
煤煙 (浮遊粒子狀物質)	1時間値의 1日平均値가 0.10mg/m ³ 以下로, 동시에 1時間値가 0.20mg/m ³ 以下일 것	연간평균치가 0.15mg/m ³ 以下로 동시에 24시간평균치가 0.30mg/m ³ 以下일 것.
二酸化窒素 (NO ₂)	1時間値의 1日平均値가 0.04ppm 에서 0.06ppm사이 혹은 그 以下일 것.	연간평균치가 0.05ppm以下로 동시에 1시간평균치가 0.15ppm以下일 것.

第26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

THE 26TH JOINT CONFERENCE OF KOREA-JAPAN & JAPAN-KOREA ECONOMIC COMMITTEES

1994. 4.14~16 FUKUOKA JAPAN

〈提案〉

韓日中堅經營人交流促進團 派遣

大 農 G R O U P

會長 朴 泳 逸

방금 紹介받은 朴泳逸 입니다.

오늘 韓日・日韓 兩經濟協會의 두분 會長님을 비롯하여 兩國經濟界의 중진이신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제안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큰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89年 4月 서울에서 開催되었던 第21回 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에서 兩側이 合意하여 實施되어 온 韓日中堅經營人交流促進團은 89年 이래 韓國側에서 4回, 日本側에서 1回 相互訪問을 한 바 있습니다.

同促進團은 兩國의 有數기업과 工場見學을 통하여 兩國의 技術水準現況, 經營戰略等を 파악할 수 있었고, 또한 세미나와, 講演會開催等 상호교류를 통한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양국 企業人間의 理解增進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양국의 중진경제인 및 관계자 여러분께 眞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最近의 經濟環境은 EU, NAFTA等 世界經濟의 블록화趨勢와 UR妥結로 인한 國際化・開放化의 파고가 거세지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韓日協力關係를 構築하고, 나아가 아・태지역의 經濟活性化를 위해 더욱 굳건한 經濟協力の 기틀을 다져야 할 狀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急變하고 있는 時代的要請에 부응키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重要的 것이 確固한 信賴의 構築이라는 點을 認識하고, 본 사업의 持續的이고도 發展的인 相互交流의 場을 통하여, 兩國 企業人間의 友好와 相互補完的인 經濟協力關係를 더욱 더 發展시켜 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今年에도 韓國의 中堅經營人交流促進團이 日本을 訪問할 豫定으로 있으니, 아무쪼록 본 사업이 한층 더 活性化될 수 있도록 日本側 財界 여러분의 積極的인 協調있으시길 付託드립니다.

感謝합니다.

답

답

第一企劃（株）

社長 田中 宏明

제일기획의 다나까라고 합니다. 방금 대농그룹의 박영일 회장님으로부터의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국 증견경영인교류촉진사업은 이미 작년까지 5번에 걸쳐서 실시되었으며 매년 교류증진을 심화시켜왔습니다.

작년에는 일본으로부터 처음으로 21명의 단원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일본측단장을 맡았습니다. 한국에서는 TOP경영인의 강연 그리고 양국의 경제전문가에 의한 강연, 패널디스커션 나아가서 대전 EXPO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양국 경영인들의 친선은 도모되어 아주 유익한 사업이었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는 매년 해를 거듭할 수록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경제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간의 상호이해와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국측으로부터 미션이 일본으로 오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일본측으로서는 여러분들의 방일을 진심으로 환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양국 사무국레벨에서 협의를 한 후에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第26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

THE 26TH JOINT CONFERENCE OF KOREA-JAPAN & JAPAN-KOREA ECONOMIC COMMITTEES

1994. 4.14~16 FUKUOKA JAPAN

〈提案〉

韓國訪日輸出促進團 및 對日投資誘致團・産業技術交流및선 派遣

韓周通産 (株)

會長 朴 世 英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서 提案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榮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韓日兩國의 경제관계는 國交正常化 以後 발전을 거듭하여 蠶的, 質的인 면에서 크게 擴大, 成長되어 온 것은 周知의 事實입니다. 그러나 韓日間의 貿易不均衡關係가 양국간의 經濟發展段階나 産業構造隔差등으로 인해 좀처럼 改善되지 않고 있는 것도 또한 現實이며, 작년에도 약 84억불이라는 對日貿易赤字를 기록함으로써 이의 解決이 무엇보다 緊要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貿易不均衡問題의 解決을 위해 최근 兩國頂上은 물론 各界各層에서도 多角的인 努力을 경주하고 있으며, 韓日相互信賴와 協力の 雰圍氣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水平的 經濟協力關係를 넓혀가고자 하는 매우 바람직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韓國訪日輸出促進團은 1985년 5월 처음으로 貴國을 訪問한 이래, 그동안 國內中小企業 爲主로 1,851개사가 참가, 연 169개 도시를 방문하여 21,575건의 商談實績을 거둬들여 國內 中小企業體의 對日進出의 契機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도 輸出擴大에 큰 寄與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로지 日本側 關係者 여러분이 보여주신 지대한 關心과 協調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感謝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訪日輸出促進團은 금년중에도 3회에 걸쳐 東京을 비롯한 각 지역에 派遣할 計劃으로 있으며, 오는 5월에는 그 첫번째로 60여개사의 규모로 東京, 大阪을 訪問하여, 展示商談會 및 各種 活動을 벌일 豫定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同促進團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今年에도 많은 關心과 聲援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작년에는 대한민국 경주시에서 개최되었던 第25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에서의 合意에 따라, 한국측에서는 民官合同으로 對日投資誘致團을 派遣하여, 東京등 5개도시를 순회하면서 우리의 企業環境改善 措置, 新經濟 5個年計劃 특히 外國人投資環境改善內容에 대한 說明會 및 懇談會를 開催한 바 있습니다. 同誘致團은 日本財界여러분들의 絶對的인 協力 덕분으로 소기 이상의 成果를 거두고 歸國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金泳三大統領 訪日時 金泳三大統領께서는 「멀지않아 韓國은 "企業하기가 매우 便利한 나라"로 변모할 것」임을 強調한 바 있으며, 아울러 投資

環境改善措置로 市場開放의 持續的인 擴大, 外國人 投資可能業種의 擴大와 投資節次의 簡素化, 外國人投資家の 土地取得許容法案 마련등을 推進中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의 交流實績을 바탕으로 本格的인 對韓投資誘致를 위한 使命을 派遣하여 日本主要地域에서 說明會 및 各業界와의 相談을 實施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되어 今年에도 派遣하고자 提案드리오니, 동mission이 이번에도 좋은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日本側에서 積極 協調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兩國 中小企業間의 部品開發産業協力を 위해 86년부터 매년 部品開發協力團을 派遣해 왔습니다만, 작년부터는 日韓産業技術協力財團에서 産業技術交流mission을 년2회 受容해 오고 있습니다. 今年에도 본사업이 2회 誘致될 計劃인바, 아무쪼록 활발한 交流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日本代表여러분께서 적극 協調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傾聽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答 辯

(社) 日韓經濟協會

事務理事 石原 増男

일한경제협회의 이시하라입니다. 방금 박세영 회장님의 제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이 3가지 있었으며, 현재 양국간 경제관계에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역, 투자, 산업기술협력에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미 작년까지 실시했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일수출촉진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일한·한일 양시장협의회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3번파견에 대해서는 양 시장협의회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일본측의 수용체제에 대해서는 일한시장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일본무역진흥회, 각 지방 상공회의소, 관계단체, 각 관련기업들의 협력하에 수용체제를 준비중입니다.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대일투자유치단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년만에 한국으로부터 민관합동투자유치단이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동경을 비롯한 5개도시에서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본측에서는 통산성, 외무성을 비롯한 일한경제협회, 일본무역진흥회, 일본상공회의소 등이 후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투자유치단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으며, 민관관련단체들이 협력과 지원을 해 드리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협력및선에 관해서입니다. 본사업은 당초에 양경제협회주관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이미 8년의 세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작년에 새로 설립된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의 사업으로서 작년에 처음으로 년2회 실시한 바 있

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한국측단원으로부터 아주 높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일본측 재단사업의 일환으로서 한번 실시할 계획은 있습니다. 제안 내용을 보면 2번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재단의 사업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이 많이 포함되어었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그리고 준비관계도 있고해서 허용이 된다면 2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第26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

THE 26TH JOINT CONFERENCE OF KOREA-JAPAN & JAPAN-KOREA ECONOMIC COMMITTEES

1994. 4.14~16 FUKUOKA JAPAN

<日韓共同提案>

「靑少年交流 日韓大學生 相互訪問」

(社)日韓經濟協會

常務理事 겸 事務局長 小林 幸司

靑少年交流 日韓大學生 相互訪問에 대해서 日韓 兩國의 共同提案을 代表로 제가 提案하고자 합니다.

靑少年交流事業은 1985년부터 日韓國交回復 20周年의 記念事業으로서 開始된 以來 작년까지 韓國에서 9회에 걸쳐 427名의 大學生이 日本을 訪問하였고, 또 日本에서는 6회에 걸쳐 192名의 大學生이 韓國을 訪問했습니다. (작년도는 각 45名, 32名)

이 事業은 日韓 兩國의 相互理解와 友好를 깊이하기 위하여, 學生들이 젊은 시절에 서로의 나라를 訪問하여 얻은 經驗이, 將來 그들이 社會의 第一線에서 活躍할 때, 兩國의 여러가지 交流面에서 반드시 좋은 結果를 주리라는 취지하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參加한 學生은 日韓・韓日 兩經濟協會 會員會社의 任員・職員의 子孫분들입니다. 또한 交流의 內容은 兩國 大學生끼리의 交流, 홈 스테이, 文化施設, 産業施設의 見學 등 폭 넓은 프로그램에 따라 實施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參加한 兩國 大學生으로부터 感想文을 받았습니다. 日本側에서는 이것을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6회에 걸쳐 協會報에 掲載했습니다만, 그 內容은 「活潑한 交流體驗이야말로 將來의 日韓關係

의 前進으로 이어진다, 訪問國의 있는 그대로가 현재에 대한 新鮮한 實感과 先入觀의 消滅, 兩國間의 差異와 共通點에 대한 놀라움과 感動, 서로를 理解하려고 하는 努力이 키운 友情關係, 그리고 가깝고도 먼 나라가 상당히 가까운 나라로 변했다」라고 要約된다고 생각합니다.

以上과 같은 成果에 비추어, 本交流事業은 兩國經濟交流의 基盤인 사람과 사람의 理解와 友好增進을 위해 意義있는 事業이라고 생각되므로 兩國經濟界 및 兩國會員會社의 支援과 協力을 받아 充分한 準備와 內容을 더욱 充實히 하여, 今年에도 여름방학에 實施하고자 합니다.

以上으로 提案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全體會議

< 全體會議② >

(分科會議長報告)

第1分科會 (貿易關聯分野)

日本側 共同議長

米 倉 功

오늘 午前에 開催된 第26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第1分科會-貿易關聯分野의 일본측 공동의장을 맡은 米倉입니다.

日本側共同議長으로서 午前中の 본과회에서 토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韓日兩國代表團으로부터 다수의 단원이 參加하여 유익하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日商岩井의 西尾社長으로부터 「아시아貿易構造의 變化와 日韓協力の 役割」이라는 主題發表가 있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포괄합의, 냉전종결에 따른 시장경제의 글로벌・스탠더드화라는 세계무역환경의 변화, 동아시아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 域內거래의 확대, 域內에서의 국제적 분업형태의 출현등 아시아의 무역구조변화라는 상황분석을 통해, 그러한 상황속에서 발전을 위한 일본과 韓日協力の 役割에 대해 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일본이 해야할 역할과 아시아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함에 있어 양국의 經濟協力關係의 더한층의 긴밀화가 강조되었습니다. 이어서 三星物産의 李吉鉉顧問으로부터 「韓日新時代에 『共創・共榮』하는 經營의 길」이란 題目으로 양국간의 관계에 대한 發表가 있었습니다.

貿易逆調라는 양국에 가로놓인 상황에 대해, 韓國의 競爭力있는 상품에 대한 關稅引下등의 貿易逆調縮小努力을 일본측이 실행함과 동시에, 比較優位를 살려서 「共創」하는 共榮의 길을 모색, 동양의 哲理에 따른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多面的인 각도의 흥미있는 發表였습니다.

兩國의 主題發表後, 일본측패널리스트인 小島幹生・日本貿易會專務理事, 崔文浩・三菱商事取締役서울支店長, 한국측패널리스트인 朴弼秀・韓國外國語大學校商經大學教授, 孫明源・雙龍社長으로부터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각발표자의 의견교환후 청중으로부터 本分科會의 主題發表者, 패널리스트 발언에 대한 의견과 질문등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日本貿易會・小島幹生專務理事로부터 韓日貿易不均衡問題의 성격과 양국이 취해야할 정책의 방향, 한국에 있어서의 서포팅산업의 육성, 일본에 있어서의 수입촉진・시장악세스개선노력, 한일기업협력으로 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등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韓國外國語大學校 朴弼秀教授께서는 세계가 無국경화하는 가운데에서의 불력화, 아시아 각국과 일본과의 貿易不均衡問題의 지적, 일본측의 規制緩和에 대한 요청과 함께 현재 한국에 있어서의 輸入規制인 輸入先多變化品目の 縮小規制等 한국측의 努力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三菱商事 崔文浩取締役서울支店長으로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貿易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韓國으로부터의 對日輸出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책임의 중요성과 오랜 관계유지를 위한 信賴關係構築의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株式會社雙龍・孫明源社長으로부터는 우루과이・라운드타결에 따른 자유무역체제와 지역경제화의 문제, 최근의 북중남미출장때에 느끼신 각국의 일본에 대한 이미지와 韓國으로서의 대응에 對해서 發言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중의 赤澤 璋一・(財)機械産業記念事業團 會長, 三村庸平・三菱商事相談役, 李春林・現代綜合商事 會長으로부터도 發表에 대한 意見과 뜻있는 견해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의 主題發表, 각패널리스트, 청중여러분들의 발언등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現狀에 있어서의 狀況認識, 양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등 같은 입

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環境은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느꼈습니다. 各論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現實問題로써 양자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貿易不均衡問題는 양국의 經濟關係發展에 있어서 양국이 공동으로 해결에 임해야 할 과제이며, 아시아 다이너미즘에 기여하는 韓日協力體制를 구축하는 것이 한일관계의 발전에도 貢獻하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중에서도 規制緩和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規制緩和에 대해서는 市場開放, 시장악세스의 改善等を 日本이 諸外國에 알기쉬운 形態로 實行을 해야하며 細川政權後の 政權에 있어서도 당연히 인계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약간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만 일본에 있어서 구체적인성과가 분명히 가시화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토의와 같이 양자가 솔직하게 意見交換을 함으로써 아시아에 있어서의 日本의 役割, 韓國의 役割, 韓日協力の 役割에 대해서 공통인식을 가지고 양국이 함께 매진해 나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韓日兩國의 主題發表者・패널리스트, 본과회참가자여러분의 열띤 토의와 회의진행에 대한 협력과 한국측공동의장이신 金在哲會長의 협력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本會의 準備運營을 맡아주신 韓日兩事務局 여러분의 努力에도 感謝를 드리며 第1分科會 貿易關聯分野의 報告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全體會議② >

(分科會議長報告)

第2分科會(産業協力分野)

日本側 共同議長

藤 村 正 哉

主題發表：日本側 「最近의 日本의 産業構造의 變化에 따른 韓國等 아시아

諸國과의 技術協力・投資에 대하여」

(株)野村總合研究所 社長 水口 弘一

1. 머리말 (아시아의 경제발전)

1960년대에 일본으로부터 최초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등의 소위 NIES에 傳播된 工業化의 물결은 바야흐로 아세안과 중국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지역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아시아의 경제발전은 雁行形態的 經濟發展으로서 받아들여진다. 또한 냉전의 종결에 따라 아시아의 경제는 **Borderless**化 하고 있다.

2. 버블붕괴와 일본경제

(1) 금번 일본의 버블붕괴후의 불황은 구조불황이라 불리며, 이것은 60%의

시장경제와 40%의 행정경제로 이루어진 이중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2) 이 이중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①규제완화, 규제철폐 ②시장개방

③내외가격차의 해소 ④발본적세계개혁 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엔고하의 직접투자환경

- (1) 금번 엔고하에서의 일본으로부터의 해외직접투자는 NIES의 메리트가 작으며 ASEAN제국과 중국의 플러스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①NIES에서 경공업은 구조불황업종이 되어 엔고에서도 수출경쟁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②NIES는 80년대 후반의 임금상승에 의해 생산코스트 삭감을 위한 투자선이 될 수 없다. ③한편 ASEAN은 고도한 제품과 생산공정의 수용준비를 추진해 온 것을 들 수 있다.
- (2) 보호주의와 지역주의가 높아지는 가운데 日系企業에 있어서도 아시아는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중국이 직접투자의 「本命」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 (3) 이러한 중국의 대두에 대항하여 ASEAN諸國도 일층의 외자촉진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직접투자도입에 소극적이었던 한국도 작년 11월에는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외자우대책을 강화하는등 직접투자의 유치경쟁은 격심해지고 있다.

4. 기술이전·협력등의 전망

- (1) 아시아각국·각지역은 상위레벨로 산업구조를 고도화 할 수 없으면 경제정체를 일으킬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응기술의 고도화, 서포팅산업의 충실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본의 협력도 필요하다.
- (2)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기술협력은 기술도입으로 보면 1962년부터 1992년까지 합계 4,044건에 달해서 한국전체의 52.0%를 차지하고 있다.
- (3)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본과 대만에 비해 기반기술과 하청기업이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김영삼대통령 방일시 한일산업기반육성프로그램의 실시에 대해 합의한 것은 기쁜일이다.

- (4) 이제부터는 한국의 산업레벨, 기술레벨의 고도화에 의해 아시아域内の 리
더역할을 일본과 분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 맺음말 (今後 일본과 한국에 요구되는 사항)

- (1) 아시아의 雁行的經濟發展을 지속하기 위해 일본이 해야할 일은 ① 직접
투자와 기술이전등을 통해 후발국에 산업을 이전해 나가는 구조조정책 =
「쇠퇴산업의 해외이전」과 ② 아시아 각국에 「시장」을 개방하여 수입
증대에 노력 = 「수입의 자유화」이다. 또한 그것은 일본의 기업과 소비
자에 메리트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 (2) 그러한 자세는 한국을 포함한 NIES 및 ASEAN에도 요구된다.
- (3) 한일양국은 아시아 지역의 더한층의 발전과 국가·지역의 상호의존성이
한층 강해지는 가운데 APEC과 같은 域內에서의 협력도 더욱 중요하게 된
다.

主題發表：韓國側 「韓日兩國의 産業構造變化에 따른 效率的인 産業技術
協力の 方案」

韓國産業經濟研究院 會長 韓甲洙

서론 (산업기술협력에 대한 평가)

1. 무역

한일간의 무역불균형은 확대

- ① 자본재와 부품의 수입을 일본에 의존하는 한국의 산업구조
② 여타 아시아계국으로부터의 對日輸出增, 일본의 관세·비관세장벽

2. 기술이전

일본은 한국에 대한 최대의 기술공여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정체되고 있다. 부진한 원인은 ①일본은 직접투자에 의한 기술이전을 선호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기술양여계약에 의한 기술이전을 선호하고 있다. ②부메랑효과를 우려 ③지적소유권의 보호등 한국의 기술수입태세에 불만 ④산업환경이 중국등 여타 아시아 제국에 비해 불리

3. 직접투자

1993년 건수는 85건, 29%로 1위, 금액은 미국에 이어 27%

4. 투자환경

최근산업기술협력을 둘러싼 상황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한국측--- 노사협조→임금안정→투자환경개선

일본측--- 기업은 리스트럭처링→해외생산기지로의 시프트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한일간의 산업기술협력의 필요성

1. 1980년대이후 아시아각국의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 세계 성장센터의 지위를 확립.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투자와 기술협력은 아시아NIES→아세안→

중국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

2. 한일양국은 비교우위를 상실한 분야를 축소하여 새로운 비교우위분야를 찾아 발전시켜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

3. 금후 한국의 산업은 소재, 부품, 자본재등 관련산업의 발전과 첨단기술의 응

용력에 의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를 기대

4. 일본의 산업계는 비교우위를 상실한 분야에 대해서는 부품생산의 해외시프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리적이점, 시장구매력, 양질의 기술인력 및 공업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최적의 투자대상국은 한국

한일의 산업기술협력의 기본방향

1. 민간기업의 기술협력은 상호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경제논리에 따라 실시하기 위해 양국정부는 기술이전촉진의 환경을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 (한국정부 :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개선, 지적재산권보호를 수용하는 방향)
2. 일본기업은 한국이 고부가가치업종중심의 투자대상국인 것을 인식해야 한다.
3. 일본은 (1) 첨단중소기업의 대한투자를 촉진한다. (2) 대기업의 첨단산업기술개발과 시장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의 폭을 확대한다. (3) 정부간 협력에 의한 기초기술의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4. 대한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책 검토를 기대

구체적인 산업기술협력의 강화책

1. 테크노마트의 활성화

(1) 산업기술의 활발한 거래를 추진하기 위해 상설테크노마트를 통한 기술의
상품화와 시장에 제공된 기술의 합작투자가 필요

(2) 중소기업의 테크노시장을 구축

(3) 기술정보 데이터뱅크등을 구축

2. 상호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일본의 자본이나 첨단기술과 한국의 중급기술과의 제휴를 통한 제3국으로의
진출을 위한 가능사업의 체계적발굴과 실시사업의 조직체를 구성한다.

3. 일본의 O B 기술자 활용에 의한 사업추진

4. 수입선다각화품목의 한국진출에 대한 정부지원

5. 부품·소재산업중심의 기술협력을 강화

일본측코멘트 : 日本피스톤링(株) 社長 小林 節雄

1. 각종 엔진관련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일본피스톤링의 小林사장으로부터는
「자동차관련산업에서의 일본과 한국 및 대만과의 공생」이라는 아주 귀중한
코멘트를 받았음.

2. 일본기업은 엔고와 貿易摩擦로 인건비가 낮고, 潛在수요가 큰 동아시아 제국
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인건비가 높은 한국과 대만은
금후 직접투자가 증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기본인식

3. 자동차관련산업의 경우는 이 3국간에 조속히 본업·상호보완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늦어질 경우 3국간의 상간의 비극초래가 염려된다.
4. 다행히 한국·대만 모두 ①기술·생산설비가 고수준에 있으며 ②자동차관련업계는 여러가지 형태로 일본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기때문에 쌍방의 유리성을 결합시켜 「공생」을 도모해야 한다.
5. 결국 일본으로서는 비교적 우위에 있지않는 상품의 생산을 이전한다든가 쌍방의 협력에 의한 매입처로서의 제3국을 찾는 것이다.
6. 이를위해 관계3국이 각종 규제를 대폭적으로 철폐하여 동아시아제국내에서의 대형시장을 조속히 창출하는 것이 긴요하며 정부의 과감한 시책이 요망된다.

川崎重工業(株) 取締役 産機・鐵鋼事業本部副本部長 高輪 裕通

1. 川崎重工業(株)의 高輪 取締役으로부터 플랜트비즈니스의 시점에서 한일양국의 기술이전, 경제협력의 2가지사항에 대해 코멘트를 받았음.
2. 플랜트비즈니스라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으며 ①플랜트수출은 본질적으로 기술이전을 동반하는 수출이다. ②플랜트메이커 자신의 전략의 하나로써 기술이전을 실시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3. 한일양국의 플랜트 수출협력의 현상을 보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플랜트수출은 감소하는 방향에 있으며, 이것은 한국자신이 플랜트 수출국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한일관계는 예전에는 한국측의 일본에 대한 부품공급, 機器의 공급이라는 레벨이었지만 최근에는 수직분업, 나아가서는 수평분업으로 그레이드업해 오고 있다.
5. 플랜트비즈니스에서 한일양국기업에 의한 協業의 기회는 금후 아시아의 발전과 함께 한층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측코멘트 : 한화JAPAN (주) 社長 金正

1. 한갑수 회장의 발표에 관해

(1) 직접투자의 부진 원인

일본측 : 장기적수익의 보증

한국측 : 장기적 기술협력이 가능

(2) 부메랑효과에 관해

일본측 : 과거 부메랑효과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으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한국의 산업도 한층 고도화

(3) 산업구조조정에 관해

前川레포트가 발표된 당시는 큰 반향은 없었지만 현재는 반향이 있음.
요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

2. 水口 弘一 사장의 발표에 관해

(1) 한·일 기술이전의 내용

기술이전의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수준에 맞는 첨단기술의 협력이 필요

(2) 일본경제의 문제점

規制緩和, 規制撤廢, 市場開放, 内外가격차해소는 水口 弘一 사장 견해와 동일

(3) 한일경제관계

경제논리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당연

産業研究院 日本研究센터 所長 金 都亨

1. 불황하의 일본경제의 현상

(1) 버블경제의 붕괴

토지, 주식을 중심으로 하는 신용경제 붕괴의 후유증

(2) 고용조정

고용조정은 40%가 하고 있다. 歐美와 같은 조정은 불가능 하다. 이때문에 高코스트의 지출이 계속되는 것임.

(3) 엔고문제

엔고는 물가하락을 초래하지만 무역수지는 흑자.

(4) 비제조업의 생산성

일본경제는 생산성과 외환에 의존하고 있지만 비제조업의 생산성향상의 노력이 핵심.

(5)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일본은 하드웨어중심의 자본투자를 실시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첨단 기술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보면 리프트와 조화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중요

(6) 일본의 직접투자 시나리오

아시아域內에서의 추진해야할 목적은 域內의 제품을 집약하는 것이 중

요. 각국별로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일본의 독자적인 직접투자의 시나리오는 미스매치. 또한 원세트주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산업의 공동화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됨

(7) 제언

- ① 무역, 투자, 기술의 유기적 통합
- ② 高코스트 체질의 개선, 구미의 시스템을 도입할 것

2. 한일협력에 대해

(1) 서포팅인더스트리

개념이 불투명, 불충분하지만 산업협력의 목적은 무역불균형의 해소

(2) 아시아와 한국에 대한 스킴

아세안에 대한 스킴과 한국에 대한 스킴은 달라야 함.

(3) 직접투자의 스탠스

메리트가 없어졌다고 해서 철폐할 것이 아니라 양국의 노력에 의해 지속하지 않으면 안됨

(4) 한국의 투자개방

한국의 투자개방에 대해서는 한국자신이 숙지하고 있지않음. 또한 일본도 한국의 투자개방현황에 대해 불만이 많음.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한국도 노력하고 있음.

綜合 : 결론적으로 나중엔 공동성명이라는 형태로 발표가 되겠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양국은 새로운 아시아시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산업구조를 서로 개편하는 한편 아시아국가들과의 무역확대, 투자, 기술 협력을 증진시켜야 하며, 그경우 각국의 특징을 살린 협력관계를 추진하여야 한다는것이 본과회의 결론임.

第26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

共 同 聲 明

第26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는 1994年 4月 14日, 15日 兩日間 日本國福岡市에서 日本側에서는 羽倉信也團長外 141名이, 韓國側에서는 朴龍學團長外 102名이 參加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1. 全體會議에서는 經過報告後 4個 專門委員會의 活動狀況에 대한 報告가 있었으며, 모두 異議없이 承認되었다.

- | | |
|--------------------------|--------------------|
| (1) 第20回 韓日・日韓貿易委員會 | (1993年 6月 韓國, 서울) |
| (2) 第19回 韓日・日韓機械工業委員會 | (1993年 10月 韓國, 서울) |
| (3) 第12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 | (1994年 3月 韓國, 서울) |
| (4) 第 3回 韓日・日韓産業一般委員會 | (1993年 11月 日本, 東京) |

2. 우선 兩國關係의 基本的인 方向에 대해 다음과 같이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現在, 世界各地에서는 政治的, 民族的, 宗教的對立이 激化되고 있으며, 經濟面에서는 우무과이・라운드의 妥結에 따른 自由貿易體制의 維持發展이 確認됨과 同時에 EU, NAFTA等の 地域共同體가 擴大強化되는 움직임도 있다.

아시아는 持續的인 經濟成長으로 世界經濟에서 큰 地位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韓國과 日本은 自由貿易의 堅持라는 立場에서 아시아各國과의 共生을 꾀하면서 아시아와 世界의 政治的, 經濟的 安定과 繁榮에 貢獻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3. 兩國은 基調演說 및 貿易關連, 産業協力, 交流增進등 各分科會에서 意見發表 및 交換을 통해 아래事項에 대해서 認識을 같이 하였다.

- (1) 兩國間의 貿易不均衡은 여전히 커다란 課題이며, 이를 解決하기 위해 韓國은 産業構造의 改善과 技術의 革新・開發에 의한 産業 및 商品의 國際競爭力強化를 꾀하고, 日本은 規制의 緩和等 加一層의 市場開放 促進에 努力함과 同時에 韓國産業의 競爭力強化에 協力한다.
- (2) 兩國間의 投資・技術協力を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兩國企業間의 相互信賴와 經濟論理에 입각한 協力關係의 造成이 그 基盤이 된다. 最近 아시아 各國의 急激한 經濟發展은 아시아地域에서의 投資 및 技術協力の 양상에 變化를 가져오고 있는 點에 비추어, 韓國은 投資 및 技術移轉에 關한 各種 環境의 整備를 強化하며, 日本은 韓國의 投資誘致와 産業技術力向上에 協力한다.
- (3) 兩國은 새로운 아시아의 時代를 構築하기 위하여 産業構造를 改善하는 한편, 아시아 各國과의 貿易擴大, 投資・技術協力を 增大함에 있어 各各 特色을 살린 協力を 推進한다.
- (4) 中小企業의 育成은 韓國産業의 競爭力強化를 위한 基盤인 바, 韓國은 中小企業에 對한 資金, 技術等の 支援을 強化하고, 日本은 産業技術協力財團事業等を 통한 産業技術人材의 育성과 工場運營에 對한 助言等を 한다.
- (5) 兩國間의 未來指向인 協力關係를 構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相互 理解와 信賴關係가 基礎가 되는 바, 兩國은 多樣한 分野, 地域, 階層에서의 相互交流에 努力한다.

(6) 昨年 11月 兩國 頂上에 게 提出된 「韓日經濟人포럼」 報告書는 兩國의 向後 經濟協力方向을 提示하는 것이므로 이를 尊重하고 推進한다.

4. 分科會에서의 提案等에 의거, 別添事項이 合意되었다.

5. 次期會議는 來年봄, 韓國에서 開催한다.

1994年 4月 15日

韓國側代表團 團長 朴 龍 學

日本側代表團 團長 羽 倉 信 也

<別 添>

合 意 事 項

- (1) 今年 3회에 걸친 「訪日輸出促進團」의 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2) 韓國側은 對日投資誘致團을 派遣하며, 日本側은 이 促進團의 日本國內에서
의 活動에 協力하는 件
- (3) 兩國의 産業技術協力財團 事業에 對해 協力하는 件
- (4) 韓國側은 産業技術交流促進團을 日本에 派遣하며, 日本側은 그 受容에 協力
하는 件
- (5) 兩國間의 技術協力增進을 위해 韓日・日韓兩經濟協會에 의한 技術提携幹旋
事業을 推進하는 件
- (6) 「中堅經營人交流促進團」의 日本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7) 「靑少年交流事業」으로서 韓日兩側이 大學生을 相互 派遣하며,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8) 其他 各種協力・交流事業을 韓日・日韓兩經濟協會의 合意下에 共同으로 推
進하는 件

以 上

〈閉會式〉

團長人事

韓國側 代表團

團長 朴 龍 舉

尊敬하는 羽倉信也團長과 顧問・相談役을 비롯한 日本側代表團 여러분.

그리고 韓國側 代表團 여러분.

어제부터 이틀간에 걸쳐 開催된 第26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을 閉會함에 즈음하여 人事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會議은 3月下旬 金泳三大統領의 訪日로 이루어졌던 細川護熙總理와의 頂上會談에서 合意된 앞으로의 兩國間協力基本方向을 中心으로, 또 昨年 10월에 結論이 내려진 韓日經濟人포럼의 報告書가 提示한 多方面에 걸친 協力方案을 놓고 眞摯한 意見開陳과 討論을 통해 方今前에 採擇된 共同聲明과 같이 큰 成果를 거두고 이제 그 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兩側代表團 여러분께서 始終一貫 積極적인 協調精神으로 會議에 臨해주신 德分으로서, 이에 韓國側團長으로서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兩國代表團 여러분

金大統領이 訪日時에 밝혔듯이 우리 두나라는 歴史的인 事實은 있는 그대로 認識하되, 過去의 束縛에서 벗어나 새롭고도 밝은 未來를 위해 더욱 힘찬 前進을 해야 할 重要한 時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러한 努力의 結果는 우리 世代의 韓日共同繁榮만에 그치지 않고, 다음 世代를 包含한 子孫萬代에 걸쳐 永遠한 友誼와 鞏固한 紐帶關係를 굳건하게 構築하게 될 것임을 굳게 믿는 바입니다.

過去가 있었기에 現在가 있고 現在는 바로 未來로 이어진다는 말과 같이, 우리는 오늘의 온갖 努力이 밝은 未來를 向한 힘찬 前進으로 이어진다는 事實을 잊지 말 것을 다시한번 다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親愛하는 兩國代表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정말 勞苦가 많으셨습니다. 眞心으로 感謝드리며, 아울러 이번 會議이 이곳 福岡에서 열릴 수 있게 힘써 주신 이 고장의 行政當局과 經濟界 여러분, 또 이번 會議이 成功裡에 끝날 수 있도록 萬般의 準備와 빈틈없는 進行을 맡아주신 日本側代表團과 事務局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感謝와 敬意를 表합니다.

그러면 來年 韓國에서 다시 뵈을 때 까지 부디 健安하시기를 祈願하면서, 이것으로 閉會人事를 마치겠습니다.

皆さん、さようなら

感謝합니다.

〈閉會式〉

團長人事

日本側 代表團

團長 羽倉 信也

第26回 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를 폐회함에 있어서 한마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兩國代表團 여러분께서 아주 多忙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틀간에 걸쳐서 열심히 토의해 주신데다가 또한 솔직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會議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成功裡에 회의를 마칠 수 있었던 것도 朴龍學단장님을 비롯하여 韓國側 여러분, 그리고 日本側 대표단 여러분의 협력과 厚意 덕택이라고 생각되어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금번 회의가 이렇게 훌륭하게 진행된 것은 福岡縣, 福岡市, 九州・山口經濟連合會, 福岡商工會議所, 福岡經濟同友會 및 관계자 여러분의 다대한 지원과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어저께 開會式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日韓關係는 작년보다 대단히 바람직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그러한 흐름을 한층더 촉진시켜 확고히 정착시키고 그리고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는데에 미약하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고 確信하는 바입니다.

또한 새로운 조류가 정착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기에, 본회의 共同聲明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이번 회의에서 무역불균형의 개선, 투자, 기술협력의 촉진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또한 중소기업의 육성등의 면에서 협력해 나간다는데 합

의를 본 것은 실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미래지향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相互理解促進과 信賴關係強化가 기초가 된다는 것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日韓經濟協會로서도 이번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가일층의 교류를 거듭하여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 兩國經濟關係發展을 위해 힘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배전의 지원과 협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양국 대표단여러분의 더한층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며, 日韓國交正常化 30주년이 되는 내년에 韓國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閉會人事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